朝鮮日報
夕刊
八日(水)
本紙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決裂에直面한軍縮會議

英佛伊三國提案 具體的內容覺書

建艦計畫의自發的通告는共通 各國代表에覺書配布

【倫敦七日發電通】英國及伊太利代表部는 七日午前 海軍協定에 對한 兩國提案의 具體的內容을 記述하야 타이프한 二페이지餘의 覺書를 各國代表에게 各各配布하고 佛國代表部도 亦是 七日午後 同樣으로 覺書를 "各國代表에게 配布하엿다 그런데 그各國案의主要點及 相違點은 如左하다

▲英國案

一、各國은 六個年의 自國의 建艦을 相互通告交換하고 그最高限度를 宣言하기로함

一、그리고 各國은 右建艦宣言을하기前에 條約國과協議하기로함

即各國政府의 建艦宣言은 相互依存的의것으로서 一國이 宣言程度를 超過하는 建艦計畫을行할境遇에는 他의條約國은自動的으로 宣言의拘束을解放하기로함

一、老朽艦廢棄에關한 規定

▲伊太利案

一、各國은每一年마다 그建艦計畫을一方的으로 宣言하라

一、右宣言은新艦의킬据置의 몃個月前에行할것

一、그리고 右期間中의 他國의 建艦計畫이 自國에 脅威를 與함과 如한 境遇에는 協議를 申請하야 그變更을 할수잇게할것 他國의 建艦計畫에 依하야 自國의 計畫을 變更하는 自由를 有함

▲佛蘭西案

그리고 佛國案은 建艦計畫期間을 每六個月로하는 點을 除하고 全然 伊太利案과 同樣이다

그리고 佛、伊兩國案이 모다 總噸數에 全然 不觸하고 또 他國의 建艦計畫이 脅威를 與할 境遇에는 抗議를 提出하야 他國의 計畫變更을 求한다는 態度를 取하고잇슴으로 相對國은 반듯이 抗議의 義務를 負하지안코 六個月 或은 若干月의 期間이 잇스면 協議의 餘裕가 잇다는데 不過하다 이點이 英國이 宣言前에 協議한다는것과 根本的으로 相異되는바이다

量的制限問題는 影子까지消沒!

米國도英佛伊와共同戰線? 日本代表部對策에苦心

【倫敦七日發同盟】六日의第一委員會의 決定에 基하야 英佛伊三國代表部에서 起草된 情報交換에 關한 具體案은 條約案의 形式을 取하야 英佛伊三國이 各各 提案의 同化와 歸一과를目標로한것으로 各國이모다 今回會議에서는 情報交換을 眼目으로 建艦通告案以上의 것은 到底히 實現不可能이란 覺悟를 定하고잇는것만큼 休會前에 떠돌던 量的制限案과 如한것은 全혀 影子를 沒한 觀이잇다 英佛伊三國이 各其大綱으로서 如斯히 接近하고잇는以上 日本代表部로서는 右三國案에對한 米國의 共同戰線을 相對로 孤立無援中에 共通最大限設定案을 主張할박게 업는 立場에 서게될것은 必定이므로 全權部에서는 七日午後三時의 建艦通告案을 檢討하고 全力을 擧하야 八日의 第一委員會에 臨할 對策을 協議하야 最後의 境遇에 斷乎한 强硬態度를 表明할 準備에 沒留中이다

佛國代表 日本代表部訪問

【倫敦七日發電通】佛國代表로베르中將、首席隨員 베크少將은 七日正午 그로브나·하우스에 永野 永井兩全權을 訪問하고 佛國側의 建艦宣言具體案을 提示하고 詳細說明을 加하야 質疑應答을 行한後 永野全權은 日本의主張을 다시 說明하고 會談前後二時間에 … 다

各國共同戰線으로 日本受諾을强要?

英、最初案抛棄코佛伊와合流 結局四對一로對立

【倫敦七日同盟特派員發】七日正午로써 英佛伊三國政府의 建艦通告에 關한 草案이 全部提出되엇는데 그사이에 自然 相當한 距離가 잇스나 各國代表는 殘存된 最後의 可能한 協定案으로 어떠한 妥協點을 發見하기에 努力할것은 想像키 無難하다 또 이建艦通告案과 質的制限案을 組合하야 各國이 一致하야 日本政府의 受諾을 迫할 可能性이 多分이잇다 現在 英國代表部는 最初의 宣言案을 어느동안에 放擲하고 全혀 換骨奪胎한 單純한 建艦通告案으로 四對一의 最終場面에 當面할것은 그리 멀지안타고 보이게되엇다 그러나 全權部에서는 이情勢에 벌서 滿하야 日本案의 根本精神에 反하는 偶軍縮案에 斷乎反對하고 特히 質的制限提議에는 即座에 拒否를 表明하고 退席함도 不辭한다는 決意를 굿게가지고잇다(사진은 永野全權)

突破하야 벌서 量的制限에는 一切 希望을 버리고 最後의線에 後退하야 死守할模樣이므로

法制局長官更迭?

【東京電話通】國體明徵問題에 關聯하야 金森法制局長官의 辭意가 굿기때문에 政府는 休會後議會前에 可及的 速히 法制局長官의 更迭을 行하기로되어 目下 岡田首相邸에서 그後任者를 銓衡中인데 有力한 候補者로 遞信次官大橋八郎氏、鐵道次官喜安健次郎氏、兵庫縣知事湯澤三千男氏等이 列擧되고 잇는데 이三日中에 銓衡을 終하고 十日의 閣議에 附議하야 決定할方針인바 人選如何로는 或은 延引될는지도 모르나 如何튼 一週間內에는 更迭이 實現될터이다

AAA無効判決 日本엔別無影響

【東京電話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復興策의 根幹인 農業調整法의 無効判決에 關하야 日本爲替銀行方面에서는 如左한 觀測을行하고잇다

一、A·A·A에 基한 生產制限은 今後多少라도 緩和되리라는 豫想에서 米棉市價는 低落을 未免할것이다 따라서日本紡績會社는 先低豫想과 市價安定時期를 겨누고 當分買付를 避할것이므로 爲替市場에의 棉花手形의 出廻는 또다시 延期되지 안흘수 업다 如斯한 見地로서본다면 爲替의支持材料가되나 萬一 市價가 暴落되게되면 棉花手形은一時에 殺到하야 圓爲替는 急落될것이다

一、無効判決에 依한 米國의 인풀레計劃失敗는 自然 政府로하여곰 健全通貨政策을 取하게하고 따라서 英米크로스는 低落될것이다 이方面으로본다면 日本對米爲替는 軟弱을 未免하게될것이다

等인데 如何튼 日本에의 影響은 거의 不足介意라는 點으로는 全혀 意見이 一致하다

今年方向指示

政務總監演示要旨

今井田政務總監은 七日 定例局長會議에서 今年 各般事業에 關하야 所見을 指示한바잇섯는데 大要는 如左하다

一、第二의 四半世紀初頭이므로 過去二十五年間의 基礎우에서 完成으로 邁進치안흐면안되다

一、統治의 根本方針은 이미 明白하나 人心을 새로히하는것이 政治의 要諦이므로 新政策을 세워 이에 向하야 努力을 傾注할 必要가잇다

一、卽 新政策의 目標는 이미 昨年의 道知事會議에서 總督으로부터 指示된바와가티 今後의 二十五年에잇서서 半島民衆으로하여곰 日本臣民同樣의 權利를 엇게하고 義務를 가지게함에잇스므로 이에 向하야 諸政策이 樹立되어야할것이다

稅務官署官制改正公布

【東京電話同盟】朝鮮總督府에서는 稅務官署 官制를 改正하야 技手四名을 增員하것다는 官制를 八日의 官報로 公布하엿다

北中諸稅收入 中央送附를要請

冀察委員會拒否?

【北平七日發同盟】國民政府鐵道部長張公權氏는 去三日 北平에 到着한後 宋哲元、蕭振瀛、秦德純氏等 冀察政府要人과 數回에亘하야 會見하엿는데 그內容은 極秘에 附하나 同政府의 諸稅收入 特히 鐵道收益金을 南京政府에 送還하는件에關하야 中央의希望을 述하고 그實行을 迫한것이라고 解釋되다 그리고 冀察委員會側에서는 北中의特殊事情을 述하야 同收益金의 中央送付를 回避한모양인데 그解決은注目되는바이다

日本將校襲擊事件 宋氏에嚴重抗議

【北平七日發電通】朝陽門에서의 日本將校襲擊事件에 關하야 日本軍部는 宋哲元軍의 日本軍에 對한 重大侮蔑이라고 極度로憤慨하고잇는데 北平駐屯步兵部隊의 長谷川大佐는 七日午前十一時 宋哲元氏에게 對하야 公文書로서 本事件은 宋哲元軍의 日本軍에對한 明白한 敵對行爲이라고指摘한嚴重抗議를提出하엿다

胡漢民氏 十九日香港着

【香港八日發電通】昨年六月 外遊한 西南派의 重鎭 胡漢民氏는 來十六日 新嘉坡發、十九日 香港에 八個月만에 歸來할터인데 蔣介石氏는 同氏의 中央黨部常務委員、首席으로서의 南京入을 懇望하고 許崇智氏를 特使로新嘉坡에 出迎시키기 爲하야 派遣하기로 決定하고 또孫科氏도 近近 南下하야 廣東에서 中央西南合作을 極力勸說하고 胡漢民氏의 出馬를 要請할터이다、西南派側도 八日 午後四時 陳濟棠代表 林翼中、李宗仁代表、劉廬隱氏等十三名의 歡迎使節을 新嘉坡에派遣하엿다 이박게 同地의 中國官民各團體代表者三十名도 出迎한다는等의 騷動으로 胡漢民氏의歸國은 大人氣로써 歡迎中이다

雨期切迫으로 에軍勇氣百倍

【뎃세七日發同盟】이 數日間에亘하야 뎃세一帶의 春雨는 에디오피아에再次雨期가接近한것을表示하고잇는데 에디오피아各部隊는 豪雨하게되면伊太利 自慢의 機械化部隊도 손발을 꼼작할수업스므로 雨期에들어가면 戰爭은 에디오피아軍의 것이라고 各將士는 勇氣가百倍되엇다

伊、精銳山岳部隊 東阿戰線에派遣

【羅馬七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今回 드듸어 伊太利軍의 精華 알프스部隊를 東阿戰線에 派遣하기로 決定하고 발·프스테리아·알프스師團先發隊는 六日出帆의 콘테·그란데號及 七日出帆의 콘테·로소號로 나폴리를 出發하야 出征途上에 올랏다 同師團의 殘餘部隊는 九日 나폴리出發의 伊太利號로 出征할터이다 또 알프스獵步兵師團도이미 動員하야 나폴리에 集結하야 近日中에 발·프스테리아師團의 뒤를이어 出發할터이다 山岳部隊二個師團의 增加로 東阿遠征軍總計는 正規部隊五個師團에 黑衣義勇軍六個師團을 加하야 實로 十二個師團의 多數에 達한다

伊軍用船十隻 소말리란드向發

【포트사이드七日發同盟】스에즈運河會社調査에 依하면 一月一日以後 六日間에 伊太利軍將兵約八千을 搭載한 軍用船十隻이 스에즈運河를 通過하야 大部分은 소말리란드 모가딧쇼港으로 向하엿다 同時에 東阿方面으로부터 傷病將兵一千五百六名을 搭載한 伊太利軍用船二十隻이 스에즈運河를 北上하야 伊太利本國에向하엿다

에國、廿八歲米人 外交顧問으로招聘

【아디스아베바七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는 今回에 새로外交顧問을 招聘하기로되여 二十八歲의 一米國人이 七日夜 지부티港으로부터 아디스아베바에到着할터이다 右米國人의 氏名及人物에關하여는 極秘에 附하나 八日 에디오피아政府로부터 詳細發表할터이다

軍縮會議잘잇거라! 列國은航空機競爭

海軍航空兵力의對比

【東京電話同盟】倫敦에서 軍縮會議가 討議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列國은 各各 各部門에 亘하야 競爭的 整備擴張을 計劃하고 特히 列國은 將來戰에 잇서서의 制空의 見地에서 海軍航空力의 整備充實에 主力을 傾倒하고잇는것은 注目할만한데 列國의 海軍航空機 充實의 狀況을 大觀컨대 如左하다

▲米國 現有機總數 一千三百機(解體航空兵力으로 곳 使用할수잇는것 五百五十機) 또 米國議會는 昨年 뷘슨建艦計畫案을 上程할때 『海軍使用機數를 條約量의 海軍勢力에 必要한 數까지 增加할權限을 附與함 但 그最大限은一千百八十四機로함』이란 決議를 行하야 五個年繼續事業으로 六百五十機를 製造하기로하야 昨年度에 五百名의 搭乘員을 敎育增員하엿다 그리고 米海軍은 主力艦隊의 渡洋進攻에 當하야 艦隊決戰海面의 完全한 制空權獲得이 絕對的으로 必要한것이라고 整備하고 잇는것은 注目할만하다

▲英國 現有機總數 九百九十機(八十九個中隊中 艦隊航空兵力은 十三個中隊 六個小隊 機數百六十五機) 昨年七月 決定한 五個年計畫은 一九三七年까지에 本國防空軍三十三個及 海外駐屯部隊를 合하야 八個中隊 總計四十一個中隊를 增加하기로 되엇는데 이에 依하면 一九三七年末의 總數는 二千五百機를 가지게되고 關係人員도 現在의 三萬一千名에 對하야 二萬人을 增加하게된다

▲佛國 現有機總數 千七百機(百六十五中隊、海軍關係의것 五十三個中隊 五百十機) 再昨年의 特別追加豫算에서 六億二千萬法의 支出로 總計七百四十機整備에着手하엿다

▲伊太利 現有機總數 千二百機(百三十一個中隊 海軍關係百九十機)

▲再昨年決定한 六個年計畫은 昨年十二億圓이라는 支出하기로되엇스나 昨年에 이것을 三個年計畫으로 短縮하엿다 特히

▲蘇聯 現有機總數 三千百機(陸上機二千七百水上機四百機) 昨年末 航空母艦一隻을 竣工하얏다

▲中國 現有機總數 六百五十機(그中海軍에 關한것 二十四機) 滿洲、上海事件後 中央統制下에 主로 米國、伊太利로부터 飛行機를 購入하야 空軍建設을 急行中이다

▲日本 現有機總數 八百機 大正五年 陸上에 航空隊一隊를 編成하야 倫敦條約以前에 十七隊이던것이 當時十四隊를 늘여 昭和九年 八隊를 新設하기로되엇다 海軍部隊는 航空母艦四隻、水上機母艦二隻을 昭和九年 復活整備하기로되엇다

英驅逐艦四隻 希臘의港에入港

【아테네七日發同盟】英國地中海艦隊所屬驅逐艦四隻은 七日알렉산드리아로부터 希臘의 피레우스港에 入港하엿다 英國이 地中海의 伊太利海軍攻擊에 備하고저 希臘政府에 對하야 海港使用을 要請하엿다는 說이 昨히傳하고잇는데 右英國地中海艦隊의 入港은 자못注目되다

埃及學生群의 反英運動再燃

【카이로七日發同盟】埃及學生의 反英運動은 舊憲法復活決定과함께 一九三〇年一時終熄狀態에잇든바 六日 滿醉된 一英國將校가 突然 街頭에서 埃及人道路掃除夫에게 發砲하야 重傷을 負케한事件이 發生하엿기 때문에 形勢는 俄然 逆轉하야 險惡化하게되엇다 事件에 憤激興奮한 群衆은 七日『暴行將校를 私刑에 處하라』고 異口同聲으로 絕叫하면서 一大示威運動을 敢行하야 當局에 肉迫하는 事態를 生하엿다 勿論 右將校는 이미憲兵隊에 拘留되어잇기 때문에 無事하엿스나 官憲의橫恣에憤激한 學生의 反英感情은益益深刻化하야 七日畢竟 英國帝國主義打倒를 絕叫하고 反英스트라익을 開始하게되엇다 으로 豫想되는 形勢가 되엇다

來週中에는 代表召還?

【倫敦八日發同盟】會議는 急轉回로 클라이막스에 達하야 이미 會議는 散會를 豫想코 或은 斷末魔의 캄풀注射的으로 質的制限問題等이 提出되는것도 可能하나 會議의 空氣는 急激히 接迫하야 아마 來週中에는 日本全權部는『訓令대로 任務를 遂行하야 軍縮의 大目的을 達成하지는못하엿스나 벌서 이以上 머물어도 有益이업다』고 總歸하란 最後的訓令을 發하게될것

人事·集會

▲愼鏞頊氏(一等飛行士二等航空士) 客臘飛行協會로부터 最高有功章受領人事次來社

▲閔丙疇氏 閔泳徽氏會葬謝禮人事次來社

▲閔丙壽氏 同上

八面鋒

◇英佛伊가 折衷案을 만든다 할지라도 均勢를 確認치아니하면 日本은 拒否할方針。

◇決裂의 責任만 回避하는것이 軍縮會議의 使命으로 알아둔다하면 무렵업슬모양。

◇極東政治問題를 가지고 日本과英國이 直接交涉을 開始하리라는 風說。

◇『레이드·로스』의 經濟政策은 應할수업다고 外務當局이 꼿꼿지反對。

◇再開議會를 압두고 政友會와 政府가 和戰兩樣으로 對峙。

◇그보다도 政友自體안에 硬軟兩派가잇서서 總裁椅子를 가지고 虎視耽耽이 可觀。

大元帥陛下 陸軍始觀兵式御親閱

【東京電話同盟】昭和十一年初頭를 飾하는 陸軍始觀兵式은 八日午前十時 大元帥陛下의 行幸을 仰하야 代代木原頭에서 莊嚴히 擧行되엇다 是日에 大元帥陛下께압서는 陸軍樣式御正裝에 大勳位菊花章頸飾 功一級金鵄勳章本綬를 御佩用하압시고 午前九時二十分 宮城을 御出門하사 十時三分『君代』吹奏、捧刀、捧銃、諸員奉迎裡에 式場에 御着하시와 [illegible]裡에 式場을 御一巡、親히 御閱兵을 終了하시엇다 觀兵式의 終了後 陛下께압서는 便殿에서、一旦御少憩後 同十一時十五分『君代』吹奏 諸員奉送裡에 式場을 御發 宮城에 還幸하압시엇다

龍山陸軍始觀兵式

非常時 日本新春劈頭를 꾸미는 朝鮮軍在龍部隊의 陸軍始觀兵式은 八日午前十一時부터 龍山練兵場에서 一萬精銳參加下에 擧行되엇다 定刻前 步兵第七十八聯隊를 右翼으로 步兵第七十九聯隊、工兵第二十大隊、野砲第二十六聯隊、騎兵第二十八聯隊의 順으로 整列을 終하자 同四十分 諸兵指揮官三宅 第二十師團長이 出場하고 定刻 小磯軍司令官은 馬上에올라 佐枝參謀長以下의 幕僚를 거느리고『君代』吹奏裡에 各部隊를 右翼部隊로부터 順次閱兵하야 同十分終了하엿다 그리고 各部隊가 分列隊形을 지으며 小磯軍司令官이 觀閱臺에 就하고 同十五分 步兵 堂堂히 分列行進이 展開되엇다 이리하야 觀兵式은 午前十一時半 終了하엿다

三國案을交涉基礎로、米代表部意見一致

四對一로日本은遂孤立

【倫敦七日發電通】軍縮米國代表部에서는 七日午前 午後二回에 亘하야 首腦部會議를 開하고 英佛伊三國案을 檢討한結果 各國의 各樣의 一方的 自由宣言으로하지말고 此를 一律的으로 協定의形式에 綜合하도록 調整할必要가잇다는 點을 除하고는 主義에잇서 異議업시 此를 今後 交涉의基礎로 受諾하기로 意見一致를 본模樣이다 右決定은 日本代表部의 國防平等權을 固執하야 英佛伊案을 一蹴하려하는것과 明白한對照가 되는것으로 玆에事實上日本對 英米佛伊의 意見對立이드듸어 具體化하게 되엇다 消息通側에서는 軍縮會議는 此一對四의對立으로 곳 終焉하리라고 觀察치안코 主催國인 英國이 다른協定可能點、例하면 潛水艦使用制限、保有延長問題等에 轉向하야 會議의 局面을 打開하고 協定을 만들려고하는點을 指摘하나 會議의 眼目인 本格的軍縮協定을 成立식힐 可望은업다 右는 一對四의對立明白化에 依하야 益益惡化될것은 疑心업다 八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 開催될 第一委員會에서 日本代表는 孤軍奮鬪의態度를 할것으로 豫期된다

明治(赤罐)コナミルク
가루젓
使用法簡單 價格低廉 母乳代用加糖粉乳
半ポンド入·壹罐 五十錢
000073
東京·明治製菓株式會社·京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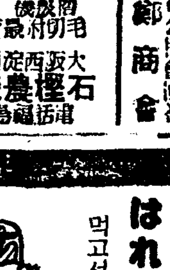
效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效能で賣れる 효능으로 팔니는
七ふく ひえぐすり (시찌후꾸 히에구스리)
定價 半週分廿五錢 一週分五十錢 ▲送料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海外四十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 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電南七二九

돈벌기대왕
어느시장에서든지 펴고으면갑이와서 잘팔리오 日本、朝鮮메리야스양말공장처에서 직조하다가 이등품나오는것을보상회에서 특약하여가로판매하오니 금번저안내하여서 큰이익을보시기바랍니다 속히개업하시와 각처에서 거래를청해온다음에는 타인에게는 거래가잘안됩니다 안내서는 無代進呈
京城府蛤洞一番地ノ一七號 光興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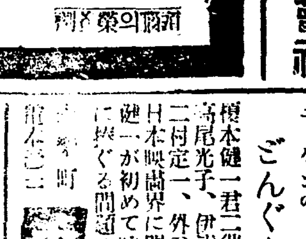
急告
本人이 昭和十年十二月三十一日 … 印鑑을 紛失하엿사오니 … 以後勿爲見 …
昭和十一年一月二日 李東雨

無資金 … 文錢堂
安東縣五番通 文錢堂

恩給 … 商會
京城府校洞一六〇 … 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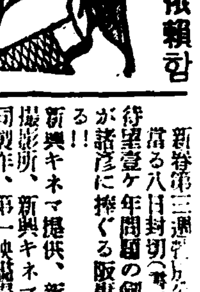


石塚農機製作所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電話福島三〇四三番



名裁判長 はれやか
먹고서判決한다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命社意義잇는大事業紹進



第一 … 第二 …
內外貿易 株式會社

新春第三週 … 封切
待望壹ケ年問題の劍劇大作 阪東妻三郎が諸彦に捧ぐる阪妻第一聲!!
新興キネマ提供、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合同製作、第一映畫撮影所、千惠藏映畫撮影所特別應援
構成賞正 白井戰太郎、原作脚色 … 伊藤大輔、首席助監督 … 撮影 吉川清太郎
オール トーキー 新納鶴千代
阪東妻三郎主演、山田五十鈴、月形龍之介 特別出演 松本泰輔、荒木忍、櫻木柄子、岡田久也、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PCL本年度第一回超特作 … ごんぐり頓兵衛
中央館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個人所得稅施行함께 地方稅制大改正

道稅로서三種稅目을增設

八日府令으로發表

지방세제의 개정에 대하야는작년에 개인소득세를 창설하는동시에 내무국에서 이에관한 조사를 시작하야 그후지방세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하야 연구한결과 대체의 개정안을 엇게되야 이미 그골자는 보도한바와갓다 그리하야 팔일부관보로 부령(府令)을가지고 도제(道制)시행규측 부제(府制)시행규측 읍면제(邑面制)시행규측 학교비령(學校費令)시행규측을 개정한 법령을총독부에서 발포하엿는데・이에의하면 지방세제개정내용의 요령은 다음과갓다

▲道稅―도세는 종래에 국세의 부가세(附加稅)로서는 지세부가세와 제일종 소득세분세의 종류뿐이엇는데 이번에 세가지가느럿다

營業稅附加稅 (本稅의百分의二十) 取引所稅附加稅 (本稅의百分의十五) 鑛産稅附加稅 (鑛區稅의百分의七鑛産稅의 百分의十 但鑛業權設定登錄月부터 起算三年間鑛區稅의百分之三)

그리고특별세로서는 종래호세(戶稅)는 농촌에 가옥세는 부와특수한읍에 구분하야 부과하든것을 폐지하고 호별세(戶別稅)와 가옥세를 신설하야 각도내일원에 부과하게 개정된것이중요한것이다 호별세는 현주호수평균한호에 대하야 남조선지방은 일원이십전 서북선 지방은 일원십전이내로 하고 가옥세는 과세가옥의 평수평균한평에 대하야 남조선지방은 십전 서북조선지방은 구전의 범위안에서 부과하게 되엇다 그러나 호별세는 당분간 남조선지방은 평균일원오전 서북조선지방은 평균구십오전이내에 끄치게 되어잇다

이외에 제일종 소득세부가세의・세률을 백분지사를 증률하는동시에 신축하는가옥에도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한다 또 차량세(車輛稅)와 자동차세도 각도가 구구한것을 통일하야간 증률하고 어업세도 그내용을개정하야 도세부담의 균행을도모할 방침

▲府稅=부세는 종래에도 상당히 만범히부과를 하고잇슴으로 이번에는 광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의 종류이나 광세부가세는 일홈뿐이고 호별세부가세는종래특별세인 호별세가 부가세로개정됨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취득세부가세뿐이 신설되엇다

▲邑面稅=읍면세는 제일종 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의 증률과 영업세부가세의감률(減率)은 부와가트나 그영향은 적다한다。새로 광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본세의백분의사십)부동 산취득세부가세 (본세의백분의 이십오)가 신설되엇게상 전체로보면 약간재원이증가한셈이다

▲學校費賦課金=학교비는 종래에 호제부가금과 가옥세부가금을 구여엇을 나노아 부과하여왓는데 이번의 개정에 의하야 호별세부가금만으로 개정하고 학교비의 구역일원에 부과하게되엇다 그리하야 호별세부가금의 제한률은 일호평균십전이 증률되엇는데 이증률은 지방세개정에 의한것이 아니고 보통학교 일면일교계획의 긔정방침에 의한증률이다

每年千學級式增設

初等教育擴充十年計畫

簡易校도二千二百校增設

學齡兒童六割收容目標로

제이차보통학교 보급확충계획에 대하야는 그간루차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학무국에서는 그간조등교육조사위원회를 조직하야가지고 협의결정한후 학무국에서 확정한 계획안의 내용을팔일에 총독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엿는데 그골자는 다음과갓다

이계획은 현재의 추정(推定)학령아동수의 륙할사일백륙십팔만명을 수용할것이 목표로되어잇는데 십이년도부터 십개년간에 매년보통학교의 학급일천학급씩 증설하야 칠만명씩십년간에칠십륙마상천여명을 또간이학교도이백이십교씩 십년간에이천이백교를 증설하야 십오만사천명을증가수용하려는것인데 계획이완성하면 경상비가 일천륙백만원이 필요하고 계획이 완성할때까지의 소요림시비는 삼천삼백만원 한게 사천구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상비중의 인건비의오할인 륙백만원은 국고로 보조하게되여잇다

그리하야 이번계획이 완성되면 학교수를 약수천오백학교에 구십삼마상천명을 수용하게되야 현재의 이천팔백사십팔교에 칠십사마칠천명을 수용하는것과합하야 이십일년도에 게획이완성하면 학교수는 칠천삼백사십팔교에총수용아동 일백륙십팔만명을 수용하게되나

그러나 학령아동에대한 취학비률을보면륙할박게안된다、그러나남녀별로보면남자는팔할인데엿자는불과사할박게취학못하게되다

昨年中에市內火災 百九十九回

溫突의失火가最多數占領

損害六十五萬圓

지난한해동안에 경성부내에서 이러난 화재는 전후 일백구십구회로서 이로인하야 재부스러기가된 물자의 손해는 륙십오만사천사백구십구원이라한다

그원인을보면 온돌의실화가 오십구회로서 제일만코 그다음으로 아궁이의부주의가십사회다

그아래로는 담배불의부주의로 이러난화재가 십회로 초뿔로인한것이 여듧회 어린아히들의불작난으로이러난것이 역시여듧회다

지역으로보면 종로(鍾路)의열여섯회가제일만코그다음이황금정(黃金町)의십이회다

李朝商業史最後遺物

前世紀唯一百貨店

宮中府中의儀式差備品을指定進達

五百餘年歷史가진東床廛 (八)

지금부터 이십년전 종로네거리에 개화의바람이불어 궁틀커리든 큰길이 훼신넓혀지고 바로잡히는바람에 종각(鐘閣)을껴안고 뒤거룸질하야 숨어안진이래 낡은영화(榮華)의 뢰룡! 해떠러진장안의 그림자!―움지못하는인경(鐘)마저다보고 사람들의 얼골조차 자조보기어려웁게 쓸쓸한 동상전(東床廛)을 차저보자!

그는 한양(漢陽)과 가치나와 한양과가치자라나고 한양과가치 퇴색하고마럿다 그러나 아즉 업서지든안코、또 그러타고 새한양의새살님에 끌려드리가지도안코 겨우며맥만을 직혀온다

오백년을 기여올너가는 그옛날 궁정(宮廷)에서는 거리에륙주비전(六矣廛)을 베플어 각긔 백화(百貨)를 종별노 나누어전매시겨 왓스니 이는 곳 오늘날에비겨보면 공설시장(公設市場) 과가튼것이다 여긔에는 요새말로 전매특허(專賣特許)를주어 다른 전방에서는 지정하지안흔물건은 팔수업고 만약팔때는 큰일이 난다는것이다 이처럼엄중한보호와 통제아레륙주비전은발달되엿든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흥은쇠러지고 흥은 사라지고 오늘까지 나온것은 오―직 이퇴색한동상전한개뿐이다

・그동안 그가 제일만히 팔고잇든물건은 군졸(軍卒)과 장교(將校)의 벙거지(氈帽)로 궁정에서쓰이는 모―든제복、호구를 이곳에서 불너드려왓다

그러나근복이필요업시된 오늘날에는 그대신 세월나는것은 혼구(婚具)제복으로 지금도 창덕궁(昌德宮)에 경사가잇슬때 제복과호구를 각지의 향교(鄕校)와 권번(券番)에 제복을 제공하는것이 큰고객이요 그외에는 동상전의이름을 아는사람이 차저와서 호구와 패물(佩物)을차즐뿐으로 일변동안 안젓스나 겨우 만원넘기기에 힘든다한다

퇴락하여 적막하기 짝이업는 이『동상전』의 신세는 나날이 위협한경우를 만나게되여 일변에 한번식은 그만두자는말이 나온다는데 지금도 칠십명의 주인을 가지고 잇다하니 과연 이처럼 주인이 만흔것은 무엇때문이며 경영방침은 어떠한가?

동상전의조직은 일종의 주식회사와도갓고 조합(組合)과도 가티되엿다 궁정에서 자본과건물을 나려주시며 몃사람에게 경영권을 주엇든것을 그들이 대대로 물녀나오면서 공동관리 해오든것으로 한때에는주인이 삼사백명에 달하는때도 잇섯다한다 그중에서 변장자로 끝너대표(代表)혹은 회장(會長)을 만들어 경영을 감독하여 온는중 지금부터 삼십년전에 백인화(白仁和)(七六)씨가 대표로 되면서부터는 종래의 전승방법을 고처 년령의 여부에 구속업시 적임자를 끝너경영시키기로 되여 작년부터는 다시그의아들 백남소(白南召)(三三)씨에 막기고 그는 다른방향을취하고잇는데 현재의회원 칠십명은 매년한차례식모아 총회를 열어온다는데 리익배당업는 주주(株主)들은 이대로 계속하는이보다는 차라리 팔어서 그나마 분배하자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반대하야 겨우유지해온다하니 참으로 추종탑엽의 격이라하겟다

오백년의 유구한력사와 한마혼 변천을겪고 림종(臨終)의날을마지한 동상전은 력사적표본으로 각뒤에서 가물그리고 잇슬뿐이다

(사진은 동상전 간판)

八名이溺死失踪

船夫兩名과乘客한명만救助

全南錦山渡船場서

【光州】륙일 오후세시반경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高興郡錦山面新平里) 정정오(鄭正午)(三二)와 가튼동리 김은오(金銀五)(四二)등 두선부는 금산면 명천리(錦山面明川里)와 풍남(豊南)간의 도선에 승객아홉명을 태우고 명천도장에서 약오정이나되는곳을 저어가다가 풍랑으로 말미아마 전복되여 열한명이 전부 겨랑에 삼키여 전기 정정오(鄭正午) 김은오(金銀五) 두명과 승객 한명만이 겨우 배에부터서 생명만은 살엇스나 승객중 네명은 무참히도 사체로 발견되고 네명은 의연히 행방불명이라하야 부락민은 총출동하여 극력수사중이라 한다

鄭萬朝氏

今朝十時永眠

현재조선이가진 거유(巨儒)의 하나로 명륜학원(明倫學院)총재인정만조(鄭萬朝)씨는 일즉이홉살을 일기로 여드렛날아츰 열시삼십분에 사직도백이십사번지 자택에서 영면하엿다고한다

씨는 경기도안성(安城)에서나서 설흔한살때에 문과(文科)에 급제한것을 관계에의 첫거름으로해서 그후홍문관(弘文館)교리(校理)로 례조참의(禮曹參議)내무아문참의(內務衙門參議)로잇다가 석운여대원에 류배(流配)가되여 잇섯다。그이듬해에 몽유(蒙宥)가되여 도라와서는 다시규장각(奎章閣)부제학을거처 다시대제학(大提學)에 이르럿다가 말년에는 명륜학원총재로 잇섯다。

漢城齒醫役員改選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에서는 신년도 정긔총회를열고 역원개선을한결과 다음과 가티 개선되엇다

會長 成鎬泰 副會長 紹東欽 理事 鄭保羅 崔永植 南啓熙 評議員 朴明錄 安炳植 韓道洙 李壽萬 金[illegible]

保險金貪내鬼夫妻

내子息을毒殺

東萊郡西村某란日本內地人

六千圓掛金을騙食

【釜山】재산횡령과 보험금사취를 목적으로 종속상인을 독살한 히대의 보험마 김인우(金仁禹)의 패륜하엿한 죄악이 아즉세인의 머리에서 사라지지도 안흔 요지음 또보험금륙천원에 눈이어두어 단하나 박게업는귀여운 자긔 친아들을 독살한전고미문의 악덕부부의 죄상이백일하에 탄로되엿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탐지한바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동래군 남면(東萊郡南面)사는 서촌모(西村某)는 대정십사년 십이월에 자긔친아들을 태평생명보험회사에 륙천원의 보험에 가입시기엿는데 그후소화이년에 그아들이 좌세보진수부(佐世保鎭守府)에 수병으로 입영(入營)하엿다가 병조(兵曹)자격시험에 락제되여서 이것을비관하고 집으로 도라온후로 극도로 신경쇠약이되여서 패인과가티 되엿고 또집안살임사리도 점점가난하야저서 부채도 상당히 잇게되엿다한다 그래서 자긔아들의 보험금 륙천원에 눈이어두어저서 부부가 공모하고 소화칠년팔월이십일에 독약을 음식물에 혼입하야 먹이여서 그의일인 이십일일오전에 사망하얏는데 그사망진단서를 엇기위하야 부산부좌천정(佐川町)모의사(某醫師)에게 교섭한 결과 현금삼백원과 논너마지기를주고 진단서를 바다서 보험금륙천원을 수취하얏다한다 그런데 이사건이 삼년후인 갯년십이월삼팔일에 부산경찰서에서 탐지한바 되여즉시 형사대가 전긔서촌부부를검거하야다가 취조를 하엿는데사실을 절대로 부인함으로 경찰당국에서는 증거수집에 맹활동을 개시하얏스나 사건발생이삼년전이라 좁처럼 증거수집이여의치못하야 일시는 전긔서촌부부를 석방까지할야다가 아무래도 의심되는점이 잇서 그후게속하야 엄중히 취조를 한결과 요지음 사실을 자백하얏다한다 그리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좌천정(佐川町)모의사도 금명일간에 인치할터이라한다

醫師招聘 月手當百圓本人來談 市內授恩洞一三九 全一堂醫院

少年을誘引 打殺코奪金

【咸興】현금을 가지고 잇는소년을 유인하여 산중에서 돌멍이로 타살한무참한강도살인 사건이 지난륙일 금변최초로 함흥법원 공판에 회부되엇다 사건내용인즉 본적을 갑산군운흥면 대중리(甲山郡雲興面大中里)에 두고 대안장백현 방면에서 절도를하면서 돌아단이든현홍관(玄興官)(二五)은 작년륙월초순경 본적지인 갑산군 운흥면 대오시천리(大五是川里) 돌아와서 동리 김모(金某)방에서 고용사리를 하고잇던중 이달상일 동면 속신리(東新里)에잇는 김히근(金希根)의 장남김명종(金明宗)(一五)이라는 소년이 자긔집 신부름으로 혜산진우편소(惠山)에가서 오원 소위체를 차저가지고 집에 돌아오는것을 알고 이것을빼아슬려고 도중에서 김언으로 김명종(金明宗)(一五)을 유인하여 대오시천리(大五是川里)부근 공동묘지까지데리고와서 큰돌맹이로 그소년의후두부를 란타하여죽인후 현금사원칠십전을 강탈도주하엿든것인데 그후 동월십오일 소관혜산서원에게 붓들려 함흥검사국에 송치되엿다가 오일강도절도살인이라는죄명으로공판에 회부되엿다

天氣豫報

七七四미리의 高氣壓은北滿洲로부터 朝鮮을 거처北海道方面에 나저지고잇스며中國內陸으로부터 黃海까지는滿洲의 配置가 不安定하다 滿洲는 맑고 朝鮮은 흐리며京仁地方에는 小雪이 잇다 日本은 雪、表日本은 흐리다

豫報 今夜 京城地方은 맑앗다 흐리다하며 京畿道全區도 맑앗다 흐리다 한다 明日도 今夜와 갓다

昨日 最高 零下二度九 最低 零下一〇度三 今朝 正午 零下三度三

氷上競技界白眉

第五回京平對抗戰

京城二勝、平壤一勝의戰績

來十一日、大同江에서

(本社支局後援)

京城과 平壤兩都市의 敎育스케이터―들이 感激과 興奮으로써 마지하는 第五回京平對抗氷上競技大會는京城白狗、平壤練光兩滑氷倶樂部共同主催와 本社後援아래 來十一日午後一時부터 平壤大同江링크에서 壯快한 幕이열리게되엿다

이번에는 平壤練光倶樂部가當番으로 京城의 白狗軍이平壤에 遠征키로 되엇는데 第一回는 惜敗의 一點差로 平壤軍이 惜敗하엿고 第二回는 六點差로 京城이 敗하엿스며 第三回에는 四四對三十으로 京城軍이 快勝하엿다 그리고 第四回인 바로 昨年은 氷質關係로 不得已中止하엿스므로 只今까지의 戰績은 京城二勝一敗、平壤 一勝二敗로 京城이 리―드하고잇서 平壤軍은 雪辱의 意氣에 불타며 連日猛練習을거듭하고 잇다

白狗倶樂部 記錄會開催

京城代表選手編成

待望의 京平對抗戰을압두고 京城白狗倶樂部에서는 昨七日午後七時부터 朝鮮體育會館에서 同倶樂部幹部會를열고 諸般事項을 討議한바 京城代表選手編成은 明九日午前十一時부터漢江링크에서 記錄會를 開催하고 이날의 成績을參考로 同午後一時에열리는 同幹部會에서 選拔決定할터이라하며 一行은 九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 十日午前六時二十分 平壤에到着하야 하로를 大同江링크에서 練習하고 翌十一日의 對抗戰에出場하엿다가 同夜十一時十五分에 平壤을 떠나 十二日午前七時二十五分에 京城驛着하야 同日의 神宮氷上大會에 出場하기로되엿다

北朝鮮氷上

大盛況裡에終幕

【咸興】咸興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六回 北朝鮮氷上競技大會는豫定과가티 七日午後一時부터 城川江氷上에서 同會長의 開會辭로 自然化한競技의幕이 열니는데 이날은 近來에보기드믄 無風快晴한 良好한 『컨디슌』아래 好記錄을 남기고 同四時에 盛況裡에 閉會하엿는바 當日戰績은 다음과갓다

【五百米】

▲一般部=1、毛鐘燮2、金吉鉉

▲學生部=1、李南生2、俞鎭俊

▲女學生部=1、林福淑 2、朱後岩

【千五百米】

▲一般部=1、金洪模2、金吉鉉

▲學生部=1、陳命顥2、韓鎭元

【五千米】

▲一般部=1、毛鐘燮 一〇分五五秒 2、金洪模

▲學生部=1、陳命顥2、俞鎭俊

【一萬米】

▲一般部=1、金洪模 二二分一一秒五五 2、金吉鉉

神宮氷上스피―드部

十二日에全種目滑走

朝鮮神宮氷上大會스피―드競技는 來十一、二兩日間 淸溪里링크에서 開催할豫定이든바 十一日은 京平對抗戰을 行하기로되여 期日이 相延됨으로 十二日(日曜)하로동안에 五百、千五百、五千、萬米等各種目을行하기로變更되엿다

江界氷上選手

都市對抗에出戰

【江界】全朝鮮氷上制霸를 目標로 猛練習을 重하며 오즉實力養成에 邁進하고잇든 江界北龍滑氷倶樂部에서는 來十七日에열리는 都市對抗戰을 비롯하야 神宮及全朝鮮選手權大會에參戰코저 尹明洙 金永吉 崔炅洙 朴濟德 金河吉等諸選手는 七日午前九時江界市民들의 熱烈한 歡送裡에 地京城으로出征하엿다

朝鮮武道館寒稽古

朝鮮武道館에서는 年例에依하야 九日午前六時부터 七時半까지寒稽古를 行할터이며 館員은無漏來參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仁川의貧民救濟

同情金二千餘圓

【仁川】년말을당하야 인천부에서는 빈민구제의뜻으로 일반지민에게 동정금을구하얏든바 금품은 아래와갓치 모집되엿다는대 지난년말에 일반빈민에게 분급한후남어지는 음력년말에 지급키로되엿다는대 동정자 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現金二十圓京元精米所 ▲五圓百東精米所 累計一千三百五十六圓三十五錢

白米二石有馬 一石朝鮮 五石加藤 五斗角丸 五斗直野 三石 二斗力武 二斗河村 四斗金泰勳 一石關町 五斗大陸 一石朱命來等各精米所 累計十五石三斗 (以上一月八日現在)

第二回 全朝鮮女子氷上大會
日時 一月二十五日(土)午後一時
場所 漢江人道橋上便特設링크
(詳細追後發表)
主催 朝鮮女子體育獎勵會
後援 朝鮮日報社

金銀 福 白金
東京市下谷區徒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83)九五〇〇番 九九二〇番 八二五〇番 八八〇〇番
振替東京六八八番 電略(トウケウイシフク)
出張所 平壤府旭町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內職業○勤人學生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illegible] 博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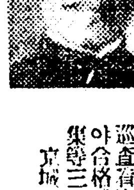
京城 金 金地金銀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二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문둥병
[illegible] 大阪市新川三丁目 太嗣堂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illegible] 特典으로[illegible] 集等三冊無料進呈
京城府永樂町二丁目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도비는 機械
新正月前一日[illegible]以上有利副業 五合入特價卅三圓(永久使用) 金鋼付
五合의米와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京城 朝鮮製菓機製作所



訃告
啞心軒洪性肅氏以宿患 京城醫專病院入院中藥石無効今月七日午後一時十五分別世玆以謹訃告
昭和十一年一月七日
運柩 一月八日午後二時
永訣式 於般栗天主教堂 一月十三日午前九時
發靷 同日午前十時
葬地 般栗郡南部面萬和里先塋下
嗣子 世雷 威雷
婿 金毅亮
親族 洪性信 洪萬基
代表 洪淳翰
友人 朴泳孝(侯爵)
總代 張膺謖 黃慶觀 崔弘燮 高鎭華
護喪 洪光義

東洋劇場 竹添町一ノ 電光3三二番
永遠의 緣 離別의曲(別れの曲) 豫告 (十二日부터)
華麗한照明裝置에 靑春의飛躍! 靑春의曲線美!
1、夢(도피시曲) 2、嘆息하는피에로 (드보르작曲) 3、炸裂(無音樂) 4、월스 5、愛의歡喜 6、小夜夜曲(도세리曲) 7、마즈루가(쇼판曲) 8、湖畔에서(류―란스曲) 8、무섭다(쇼판曲) 10、假舞의印象(金陵永曲) 11、黃昏의圓舞曲 (이바노비치曲)
趙澤元舞踊研究所 總動員 新作發表
監督 빌타―짜징카 主演 리리안하베이
貴族니콜나―스케리와其아우빠라이 안케리―두男子와케이리라는한女子는 사랑의실마리가풀니기시작한다누구의勝利일가?
오늘밤도즐거웁게 全七卷
封切映畵골롬비아特作日本版
舞踊과映畵週間 一月八日부터四日間 毎夜二回興行 午後一時 午後七時
入場料 階上 大人60 小人50 階下 大人30 小人40

若草映画劇場
安くて面白い
琴路美津子 清水明 仙穂川 跳ね廻る鳥人
エチオピアの空を行く
ミシシツピー ビング・クロスビイ W・C・フイルズ 主演
パラマウント特作 ランド復讐大活劇 監督エドワード・サザー
あばれ振袖お蝶 後篇 主演 阿部九州男 木下雙葉 監督 中島寶三
大都映畫特作時代劇
新宿劇場 八日より十一日迄

永久の愛
大船スタヂオの春
暴彈花嫁
母の心
五日より九日まで毎夜三回上映 上映時間表

日本大學의三大講義錄

와서배워라!
우리學園에!!

本邦唯一의權威를網羅한 躍進日本大學의校外教育

各講義錄이다嶄新한 內容과新硏究로된講義法에依하야서 只今에는堂堂하게斯界의王座를得한日本第一의理想的講義錄

★入學은只今! 絕好의찬스! 即刻入會하라 此際入會者에는最低廉한學費에도不拘하고 또한本學園獨特의豐富한여러가지特典이잇다

藝術科講座

藝術科長 松原寬博士監修

映畫、音樂、創作、美術、演劇等等 現代는藝術의時代다藝術이야말노 現代의社會를支配하고잇다크다란힘이다 이講座야말노 斷然藝術硏究의羅針盤이다 모든方面에對하야 本邦唯一의藝術講義로 實際와理論의一致를主眼으로하고懇切히指導教授한다

……主要한執筆者……

吉田靜致 相良德三 高須芳次郎 中木貞一 木村莊八 ◇ 松原寬 林達夫 畑耕一 北村喜八 堀內敬三 他多數

※日本大學藝術科의 實習에參加하는特典잇슴

(一個年卒業 會費月一圓五十錢)

中學講義錄

★一年半으로中學卒業★

今日의實社會에서 成功하려하는분은꼭中學卒業程度의學歷이必要하다。

그러나中學校에入學치못한 諸君은落望치말라！이講義錄으로배우면 不過一年半後이면넉넉이中等校卒業程度의學力을엇게된다。

日本第一의定評잇는本講義錄을推獎!!

一流教育家의 責任執筆。獨學者奉仕主義、日本大學附屬의中學校、商業學校에編入된다。卒業生은大學各科에特別入學이된다。其他特典優待多多。(會費月壹圓)

法律講義錄

本講義는日本大學同樣으로 科目制度를採用하야서本邦諸權威者의 執筆로되고每月一回二冊式送本하야 一年四個月卒業하는獨學者唯一의登龍門이다日本大學에入學이되는 給費制度其他特典多多。(會費月壹圓貳拾錢)

左記에葉書로申込하시면 **講義錄見本無代進呈함**

東京神田三崎町二
日本大學出版部
(電話神田一三八五番 振替東京八四〇九番)

模範家庭文庫

子女들의길버할 新春의膳物

손에들고어는폐지나 펼처보십시요

아마이와가치자미나고有益한이약이와 一에서十까지어느거나아름다운그림으로裝飾되야어른이나 애들에나깁버할그림이약이책이다

1 杉谷代水 楠山正雄著 大アラビヤンナイト
2 中島孤島著 グリム御伽噺
3 楠山正雄著 イソップ物語
4 平田禿木著 ロビンソン漂流記
5 楠山正雄著 世界童話寶玉集
6 中島孤島著 西遊記
7 平田禿木著 カリバア旅行記
9・8 楠山正雄著 日本童話寶玉集上・下
10 西條八十 水谷まさる著 世界童謠集
11 中島孤島著 續グリム御伽噺
12 池田大伍著 支那童話集
13 中村亮平著 朝鮮童話集
14 水谷まさる著 トルストイ童話集
15 前田晁著 科學物語
16 濱田廣介著 キリスト物語
17 楠山正雄著 少年ルミと母親
18 中村星湖著 こども聖書舊約物語
19 伊達豐著 家庭と學校の兒童劇
20 岡本綺堂 岡田八千代著 家庭日本芝居物語

各冊二圓八十錢 送料各冊內地壹三 書店과百貨店에具備하얏다

★楠山正雄篇★ **畫とお話の本** ★全五冊★

各冊一圓六十錢 送料十四錢
世界名作을興味잇게 各冊二圓六十錢

1 サルとカニ (一年用)岩岡とも枝畫
2 イソップものがたり (二年用)武井武雄畫
3 大男と一寸法師 (三年用)河目悌二畫
4 おやゆび姫 (四年用)初山滋畫
5 源氏と平家 (五年用)小村雪岱畫

姉妹篇 中島孤島著 こども世界歷史(全二冊)

東京・神田 振替東京五〇一・電話神田二一七一一八
冨山房

文部省囑託 國定教科書筆者 **井上千圃先生・責任御指導**

日本ペン習字講義錄

우리들이 普校에서 六學年間每日읽든國語讀本을 쓰신井上先生이 그 고흔 筆蹟을ペン字로옴겨노하 指導한것

讀本

といひ合つた。
第十八 賀茂川
京都を北から南へ流れてゐる川を賀茂川といひます。京都は長い間の都ですから、冠をかぶつて太刀をはいたおくげ様方やきれいな着物を着て、牛車に乘つたお姫様方の姿を、此の川の水はいくたびとなくうつしたことでございませう。又いくさのあつ

國語讀本卷六(井上先生書)

보십시오 官界에서나 實業界에서나 筆蹟이 조흔이가 얼마나 出世하고 惡筆이얼마나 損을보는지?

只今은 社會全般이 ペン字의時代가되어 ペン字의 巧拙이사람의 一生을 左右할만큼되엿습니다。日本ペン字界의 第一人者의 肉筆指導法으로 一個月間만 배워보시오 如何한 惡筆이라도 當場熟達할수잇서 不可思議라고 생각될만합니다。

葉書로下記에見本送付하라고申込次第 作品附キ**講義見本進呈**

會費月一圓 六個月卒業 目下特典有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一九
日本ペン習字研究會
振替東京四一八五三番

빗나는新年!!立志 本年內에 官界에!!

創立滿廿四年、成功者만키로日本第一!!

1936年의 幕은열엿다。東洋의 運命을 그雙肩에걸머진 青少年은 몬저自活自學、獨立人으로서의 自己建設을 하지안흐면 안된다。더구나 그는가장빨느고捷徑인 本講義錄은 數개月의 獨學으로 諸君을 普文試驗 又는 裁判所書記試驗合格으로、『判任官』되고、다시年年高文試驗合格者들까지輩出식힌다 願컨대今年初에成功의가장確實한本講義를읽으라

普通文官講義

只今速成科에入會하면 今年夏期朝鮮總督府施行文官試驗應試合格도可能!!

朝鮮總督府에서는 每年여름、文普試를施行하니、只今곳本會速成科에入會하야、講義錄全卷을机上에備置한後、急遽準備를開始하면、今夏施行普文試에 悠悠應試合格된다。昨年度同試驗에도、全合格者五十六名中、本會는二十餘名의 會員合格者를낸는바、그半數는速成科生으로더구나金震鎬君과가치 昨年六月速成科에 入會、僅僅一個月餘의 急速準備로훌융이合格、또 李存雄君은 昨年一月準備開始、同八月第一席으로合格하야 곳扶安郡廳에 採用되얏다、其他金英煥君은 總督府裁判所書記에任命되얏다는등 愉快한 實例가만타。

(寫眞上에서부터李存雄君 金英煥君)

百頁有益冊子 無代進呈

葉書에住所氏名明記朝鮮日報名記入申込次第、會則講義錄見本等의外

◎講義錄選擇上의諸注意
◎逆境開拓의手段及方法
◎獨學奮鬪成功者의列傳
◎全國官公署에就職實例
◎短期試驗合格者의手記

等滿載된有益冊子無代進呈。

◎準備를急하게하는분은速成科會費拾圓五十錢을送하면講義錄全卷及特典四品을送付함

試驗合格 就職實例

本會出身의朝鮮普文合格者는삭삭 官公署에採用되고잇는바最近二三例示를하면 李秉鉉君은朝鮮總督府農林局에、金永夏君은江原道廳學務課에、李在律君은咸南端川郡廳에、趙泰鎬君은忠北槐山郡廳에、黃海坤君은江原道蔚珍郡廳에、金海根君은咸北城津郡廳에採用되야 感謝狀을보내다。

東京市澁谷區明治神宮表參道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
(振替東京二三四五六)

INOUYE'S ENGLISH CORRESPONDENCE COURSE

井上英語講義錄

我國英學의父 井上十吉先生의創立

青少年諸君!!壯年諸君!!
君의成功에는암으리해도英語가必要!!
一月新學期부터꼭入學하시라!!

얻더한初學者라도ABC부터쉽게熟達된다

가르키는이는井上先生・指導는門下英學十五大家

昭和十年은日本商品이全世界의市場을風靡한해! 그러나또光輝잇게새기기시작한昭和十一年이야말로다시日本國民의繁榮에拍車를全慶賀할해다!! 이해에더욱世界商用語또는第二의日本語인英語를알지못하고는官界實業界에飛躍할라 일이며現在의地位에잇슬것까치不可能하다。우어리 諸君!!我國英學界의父井上十吉先生이創立한有名한通信教授에배우면普校卒業의 學力으로英語의讀法書法까지僅三개月間이다、몬저見本을一覽하고年頭에君의一生의計畫을세우라!!

特製九大附錄贈呈

(1) 英語レコード 十二面
(2) 井上英語讀本 全六冊
(3) 英和小辭典 全六冊
(3) 英字小新聞 月二回
(5) 月刊雜誌 イングリシユ 月一回
(6) 特許 英習字帳 全一冊
(7) 英文復習帳 全六冊
(8) 受驗 英語カード 月二回
(9) 單語 英語カード 月八枚
特別附錄 米國官選單語集

中學一年부터專門程度까지 各三개月修了 每月二回配本

學費 一개月 壹圓 廿錢

目下銀杯御下賜八週年記念賞品을入學者諸君에게贈呈中이다

(申込所) 葉書로「見本送」하라고左記에申込하시요

講義見本進呈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

일년일은"정초"에 계획세우고나가자

더구나가정일에관한제백사는 주부의억개에메인짐

설을 쉬지도 어느듯 여러날을 지낫습니다。그만하면새해의 어수선한 긔분도 가라안진축하할일이라 이제부터는새해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그야 해가 밧구이엇다고 졸지에 사람이 달러진리도 업고 환경이 나허진리도 업사오나 그러타고 계획이 업서서는 아프로의 한해를 헛살게 되고 맙니다。또 계획이란 반듯이 유택한 살림과 넉넉한처지에서만 서지는 것이 아니니 고대광실에서나 오막살이에서나 다각각 제대로의 계획이 업지 안습니다。그런데 넷어른 이르시기를 일년의 계획은 정초에 잇다고 합니다。이 정초를 헛도이 보내서서는 일년내내를 헛도이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업시됩니다。

아모리 현재에 늣긋한 만족스면 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을 가저 장래로 딴 생각을 먹도 업슬수는 업습니다。더구나 지안는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고 온늘날의 우리네들로 사회에 대처 보앗스면 좀더 잘해 보앗 해서는 말 할 여부가 업고 한 집안에 대해서라도 그런 희망 내지 갈망이 수두룩하게 만습니다。그러나

수두룩한그문제

를 일일이 다 끄내다든지 한문제만도 끗간데까지 치닷는다든지하다가는계획이 고만 꿈으로 변해 버리게 됩니다。물론 어떠한 계획이든지 그결과와는 항상 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만은 애당초 꿈에서 출발하여서는 그 결과란결과가 아모것도 남지 안 할까 겁합니다。그러키때문에 몬저 게획의 내용을 잘 정해야 합니다。잘못된 계획을 추해서는 도리어 손을 봅니다。

기르는방법일까

음식일까、의복일까、애기네를 살림을 해나가는 법절일까게획의 제목을 찾자면야 넘어 만하서 도리혀 걱정이 아닙니까? 그 가지 가지의 제목을 노코서 한꺼번에 모도거리를 하려해서도 안 되고 한술밥에 창증이 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당신네 대의 형편을 보아서 가장 급하게 서두를 것도 잇고 또 가장 쉽사리 이루어진것도、잇지를 안켓습니까? 그런 제목을 뽑아내가지고 계획의 내용을 삼지 안 하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음부터

는 애기네에게 군것질을 안 시키라든지 또 올부터는 벌고쓰는 돈을 꼭꼭 치부해간다든지 아모것이나 다 조습니다。그러케해마다 하나 하나식 계획을 세워서 쉬지 한다면 불과십년 내외에 우리네 가정생활이 아조 환해 질것입니다。

계획은 세우기도 어렵지만은 실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작심삼일이 도로레미타불이 될래서야 남의 웃음을 사는것은오히려 뇌두고 내자신의 용기조차 점점 줄리어 버립니다。싸홈을 차즈는

투사에게만용긔

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해로 서나 어머니로서나 한집안의、주부로서나 다 한게용긔를 필요로 합니다。살림을 잘못 살아가는데는 남자편에서도 책임을 저야 할경우가 만치요만은 그보담도 부인네에 게용긔가 업는탓으로 틀어가게될경우가 떠만치 안 할까 합니다 새해의 새계획아래 새용긔를내십시다。그래서 새로운가정생활의 빛나는 선봉대가 되십시다

家庭醫事

좁쌀기든종기

문 세살된남아가 약두달전부터 외몸에좁쌀갓흔것이 생기더니(손새와발새까지)심하면곰는때도잇습니다 여러사람들이 글겡이라하야 한약도먹어보고 외과치료도 하엿스나 낫지안습니다 지금은 집안식구가 다ㅣ그러하오니 무슨병일까요 담답하오니 하것이 속할가요 온천에가는 교하야주시옵소서 (姜禮宙生)

답 여러사람들이말하는 글겡이 갓는데 의학상으로는 개선이라고합니다 그간 외과치료를 바다 왓스면 더계속하야 통원하시는것이 득책일줄합니다 통원할수업스시면 다음나 죽좁쌀갓올때는 「미지카루-쫀궁」면 亞鉛華」오레부-油」 끝운것이 터지면 硼酸亞鉛華軟膏를 발나보시요류황이 만흔 온천으로효나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하는것가지지 못하겟지요 (城大小兒科研究室 李瑒鳳)

어리서은「식보」 과식고테주엄

음식흔한명절을주의하자

명절날 음식에는 소화가 잘 되지안는 음식이 만습니다 떡가튼것은 비교적 소화가 잘되지안습니다 그나마 구더지지안코 몰신몰신할때는 소화되기가 쉬우나 구더서 땅땅한것은 위장이 상하기 쉽습니다 밥은 수긔가 촉촉이 잇는것이나 떡은 수긔가 다빠진 구든것일뿐아니라 그진이 치밀한 것임으로 떡한개가 밥 멧배를 당할수 잇는것입니다 이러케 소화가 잘 되지 안는것을 그나마 적당히 분량을 맛처서먹는다면 모르거니와 신체도 돌보지안코 지나치게 만히 먹는일이 만습니다 이러케 너머지나치게 먹엇슬때는 소화제를 쓰지안흐면 위에 고장이 생기는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과식으로 말미암어 죽는사람이 만습니다 일년을 두고도 불행한 길을것는자가 얼마나 만습니까 이가운대에는 천수대로 사는사람은 실로 드믈고 대개는 과식으로 말미암어 병근이 생기게 되여서 맛참내 건강을 손상케 하는일이、적지안습니다 그럼으로 과식 하지안는것이 장수하는데 일보 비결일것입니다

그다음은 과음 하지안어야할 것입니다 더욱이 명절때는 핑게 저핑게 엇더튼 먹고 마시기에 조흔때이니까요 술에도 고급술이 중국술과 달녀서 최고급술이 아니면 악취될 수놉이 다량이포함 되여잇기때문에 건강에 여간해롭시 안습니다 건강을위해서는 될수잇는대로 삼가술을 선택하고 과음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과히 취했슬때는 먹은것을 로해버리고 숙취하지 안토록 「하세스로ㅣ」을 복용하는것이 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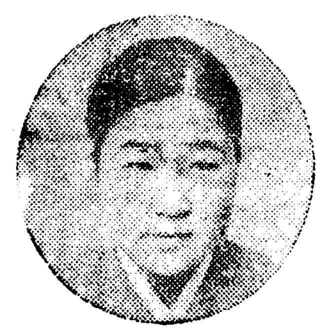
부인들은 알콜분이적다고 포도주를 과음하는때가 만습니다 그러나 다른술보다 악취되기아주 쉬우니 주의할 필요가 잇습니다 알콜분이 적으니 만히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것은아주잘못된 생각입니다 악취가 되는 것은 어떤 정도까지 알콜의 영향이나 단순한 알콜만이 아닙니다 어떠튼 장수에는 과식과 과음은 금물이니 주의가 만허야 될줄 압니다。

바누질할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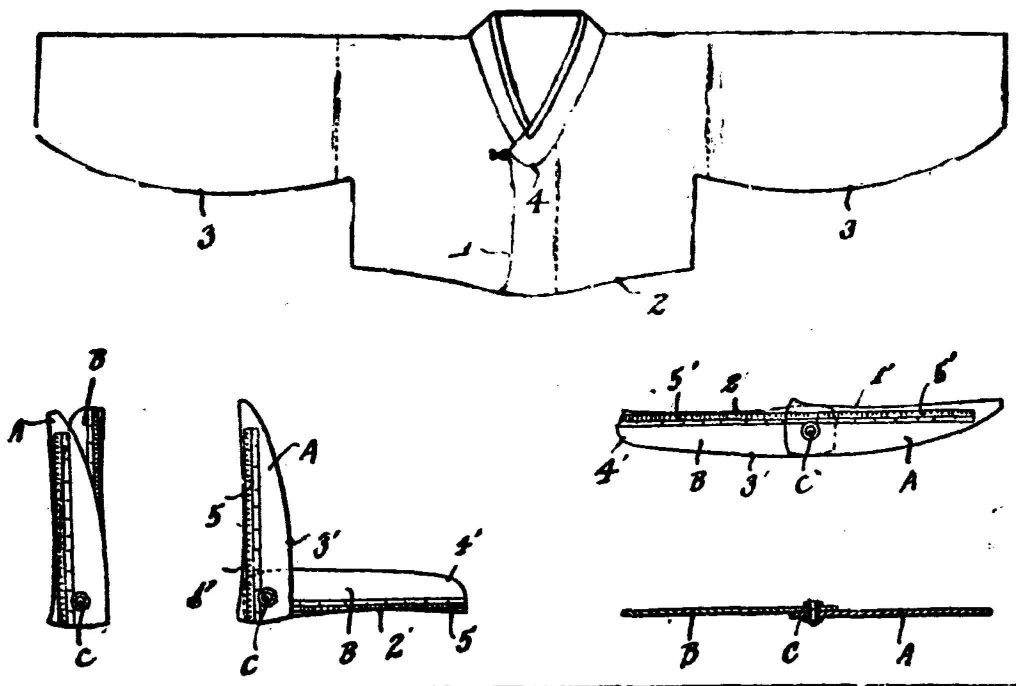
아가씨네울리든 깃、섭、소매배리

기게가생겨나서한시름면제

李小淡씨가발명한「四光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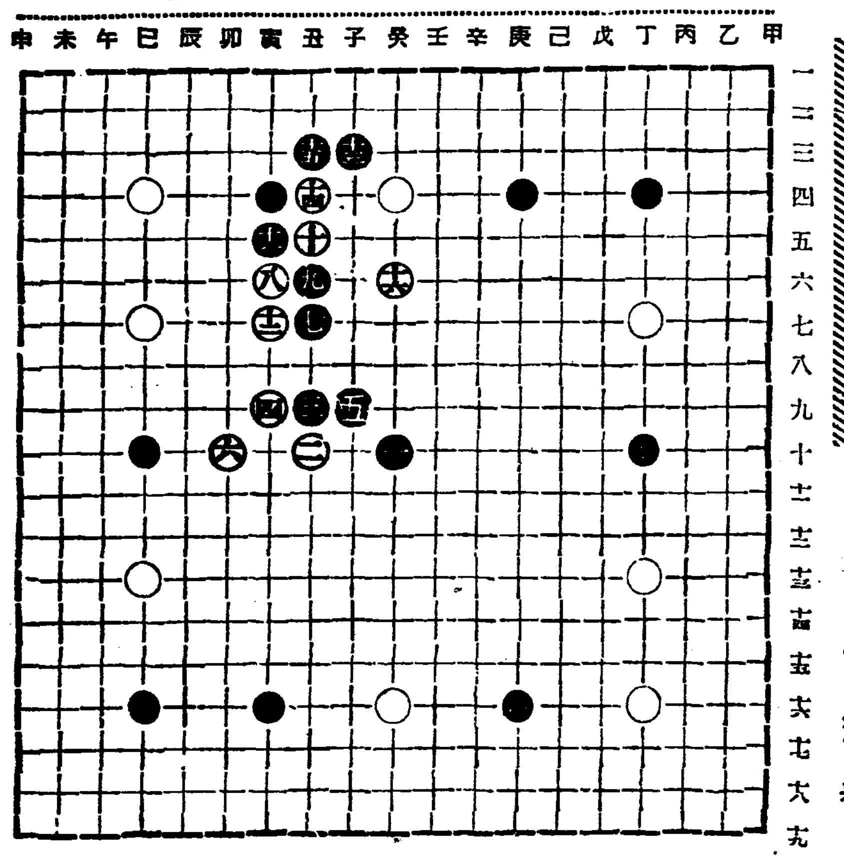
조선바누질이란 아모리 솜씨조흔사람이 한대ㅅ지 과학적이못되니까 두벌이면 두벌 세벌이면 세벌옷이 한결가리 고를수가업는것입니다 이점에 깁히늣긴바가 잇서 양재를을 연구하야 일홈이 그일홈을 등날리든 리소담(李小淡)씨가 조선옷재단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사광형(四光型)이란것을 발명하엿습니다 그림에보시는바와가리 이기게는「세루로이도」로 맨든자처럼되고 칼처럼 접엇다 펴엇다 할수잇는것인데 바누질 할때가장힘드는 깃、섭、도련、소매배리는 이기게를대고 꺽든지 접으면 일정하게 입부게 될수잇다는것입니다리소담씨는 이기게에 대하야 신안특허를 마텃슴으로 곳 대판 어느공장에 주어 만드러울 작정이라는데 시장에 나올날도 머지안켓습니다 (사진은 리소담씨리화전문 가사ㅅ과 (家事科)출신이십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蔡極文
黑 丁奎春

石	手	位置
○	一	癸의十
●	二	丑의十
○	三	丑의九
●	四	寅의九
○	五	子의九
●	六	卯의十
○	七	丑의七
●	八	寅의六
○	九	丑의六
●	一〇	丑의五
○	一一	寅의五
●	一二	寅의七
○	一三	子의三
●	一四	丑의四
○	一五	丑의三
●	一六	癸의六



◆對局者談

白 丑의十은 黑中腹을 牽制하고 地盤 占據할 意圖를 包含함이요 寅의六은 黑 冲斷할 秘算이나 癸의四 將弱點이 憂慮된다 黑은 丑의九로 擴하고 子의九로 延한후 寅의五로 白을斷絕함은 癸의四 白將 全局을 [illegible] 捷算이다 黑白雙方이 左右割據에 風雲이 潛伏하니 時勢推移를 逐次觀望하노라

當選小說 寺下村 (2)

金廷漢 作
安夕影 畵

「될하구 인제와? 소가튼년!」

들깨는 희갓을 발끈들어오는 안해에게로 몰린다。그리고 이끔보라는듯이 몸에서 막건저낸듯한、그러나 주렴에 입안이 밧삭말은 어린것을 안해의 젓가슴에 내더진다。

순이는 잠잣코 그것을 바다안고서 부억으로 들어가드니、머리에쓰수건을 몸에 추겨가지고 어린것의 얼굴을 닥그면서 일변 젓을 물린다。

『소가튼년、어서 밥안가지고와』

남편의 벼락가튼 소리다。순이는 부지중 눈에 눈물이 핑돌앗다。

들깨는 안해의 귀통이를 한번울려부칠듯이 부억으로 들어갓다가、한팔에、아기를안고 허둥대는 안해의 양자에 그만외면을 하고는、미처 차리지도안한 밥상을 얼른 들고 나온다

그러나 다른때면 곳잡닙어가는 식은 보리밥도 그날은 첫숟부터 목에탁 걸렷다。무엇이 속에서 북바처올랏다。

×

우르르、쐐——。

이글이글 달아잇는 폭양알에

난데업는홍수소리다。물벼레 고기색기가 말라저죽고、거미가 줄을치고 개아미가 장을 버렷든 보ㅅ도랑이 넘게 벌건황토물이 우렁차게 쏘다저내린다。빽갓케 타죽은 곡식이야 이제와서 믈인들 알랴마는、그래도 타다남은벼와 시들은 두렁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긔가 나는듯이 우술우술 춤을 추는것 갓다。행길 양엽흘 흘러가는보ㅅ도랑가에는 힌옷、누른옷、검정치마가 미친듯이 고함을 내진으며 오르나린다。

저수지(貯水池)의 물을 뺀것이다。성동리 농민들이 밤낫업시떼를지어 물려가서 애원에탄원에 두손이 발이되도록빌기도 하고 불평도하고 나종에는방충에 수원지 울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울달리 돌려내려고 했기때문에、면부(府) 수도 사무소에서는 작년처럼 또 폭동이나 이러날까 무서워서、못의 소제도 할겸 재이저수지의 물을 빼게된것이다。

그러나 고까진 몽물로서 들을 구하다는것은 되도안한 말이고—물잇는것이 차라리 업슬때보다 더 싯그럽게 쌋홈만 버려진다。

들깨는 논이 하보(보끄리)에잇기때문에、몃번이나 상보ㅅ저수지 물ㅅ구멍)까지 올라가지안하면 안되엿다。그러나 상보까지 가서 물을 조곰 달아가지고 오면 중간에서 이리저리 다떼이고 자긔논까지는 잘오지도 안는다。이러케 수삼차 오르나리고나니 화가 불컥 치밀엇다。억제해오든 화가。

『여보 노승!』

들깨는 오든발을 돌려서 비알진 행길을 더우잡엇다。『논을 떼엿스면 떼엿지、제ㅣ길할삭식들』하고 이를 악물엇다。한번이라도 중에게 반항을 하면두말업시 절논은 떼이고 마는것이다。

노승은 들은체만체、들깨가 겨테가도 양산을 바든그대로 물을 가로막고잇다。

『이거 무슨짓이요。미테ㅅ사람은 죽으란말이오?』

들깨는 커다란『샤벨』로서 노승의 작난감가튼 꼭광이를 떼짱과 함께 찍어다니엇다。물은 다시 쐐ㅣ하고 밋트로 빠저내린다。

『이사람이 버릇업시 왜이래ㅣ?』

노승은 딴은 점잔케 남으래면서도、눈에는 독긔가 흐른다。

『살고봐야 버릇이 잇지오。』

『하ㅣ 이사람이 환장햇군。아서라 그리안하는법이다。』

노승은 다시 물을 막으랴고 든다。

『천만에! 우리도 살아야지오 물을좀 갈릅시다。』

들깨는 제손으로 갈란다。그리고 몃걸음 안가서 또 어떤 논귀트머리에서 조고만한 대색기 한놈 쑥나오드니 물을 막고는 번개가티 쏙어버린다。

『엣ㅣ기 쥐색기가튼놈!』

들깨는 끌안이 터지라고 고함을 내진으며 쫓차가서、그놈의 수릉섭에 아람이넘는 돌을 밀어다부치엇다。

길저편에서도 쌋홈이다。—갈삽이 낡아매여진 헌옷에、허리짬만 남은—로인의나무검대기치마가튼 몽당치마를 덥허입은 가동늙은이가 보ㅅ도랑 한가온데 퍼더버리고안자서 목을 노코 울어댄다。

『아이구 날죽여노코 물다가저가소、내논 에도 물좀주고 가소……』

『이 망할놈의 늙은이 남가저온 물만 대고안섯네 너도 물 한번 끌고와봐!』

보ㅅ서 농사조합서긔인 젊은중의 가래는 더벙머리를 풀어헤치고 악을쓰는 늙은 과부의 허벅살에 삿퍼런 멍울을 남겨노코 간다。

라이온齒磨

懇願

「齒牙美와健康을害하는 虫齒는、齒牙의不潔에서됨으로 每日、優秀한라이온齒磨로니를 닥을것」

我社가多年間唱導하던 右記習慣의實行을잘하여주신同時에、機會잇슬때마다國民保健을爲하야이必要를鼓吹하여주시면 無上의幸福이라고生覺합니다

適當한潤濕 가루안알고 香氣조흔 新齒磨 潤製라이온치마

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HC-2

學藝

鄕歌解讀에就하야 —特히願往生歌를中心으로— ⑨

梁柱東

伊於衣波色賜伏也([illegible])
의衣를 小倉博士는「것」이라 읽엇다。그리고 그證據로
新川縣一云於斯買　(三國史記地理志)
交河郡本來井口郡一云於乙買串　(同上)
의 二條를 引하고、前者의 說明에서 氏는
「新의 訓은 가루인故로 於字에「갈」音이 存在한것은 明白하다」(七七頁)
고어말하엿스나、이것은 아마 氏의 誤解일것이다。「新」의 訓은「새」이니「於斯」는 完全히 그寫音이다。
물거되엇마ᄀ시니(處外橫紡)
(鄕歌四四章)
엇마기(橫紡)　(同章註)
다음 交河郡의 例에잇서서、氏는「交」를「갈마」라 訓하야「於乙買」와 通케하고、「江湖」의 古訓이「ᄀᄅᆞᆷ」인것에 미루어서「泉」을 亦是「ᄆᆞ롬」이라 訓하여도 좋으리라고 말하나(七六頁)이것도 附會인듯하다。氏는 먼저「伊於衣波」의 解讀이 따하므로 그저 理由업시「이것바」라 읽은뒤에「於」를「거」로 만들기爲하야 該二條를援用한것으로 推測된다。더구나氏는「衣」字를 訓「옷」으로 미루어「人」에 利用하엿지마는、衣字를 字會의「時衣옷(시옷)」과같이「人」에 代用하는것은 近世의일이오、羅代에서는 그러한 記寫例를 나는 아즉도 發見치못하엿다。左右間 用字例를 歸納的으로 硏究하지않고 必要에 應하야 證據가될듯한 附會材料를 援用하는것은 妥當치 못한 일이다。하물며「於」字를「거」로 읽은수는 到底히 업슴에랴。上例의「於」는 亦是音대로「어」이니、「於乙買」는「얼매」、「交」의 訓은「어울」、「泉」의 古訓은「얼」이다。지금도 오히려 忠南地方에서는 陰曆正月十五夜에 井華水떠오는것을「얼떠온다」고한다。宗敎的・民俗的用語에 古語가 만히 保存되어잇는 때문이다。저 泉(井)에 對한 古語로 [illegible] 逢一件을 日本書紀에는

去年秋九月、大臣伊梨柯須彌殺大王
(卷廿四・皇極天皇紀)

이라 記하엿스나、「泉」의 寫音은「伊梨」(일)로 되여잇다。또한新羅語中의「여울」(灘)・「개울」等「울」을도 大體로 가른語原일것이오、慶州閼川의「알」도 亦是同系語일것이다。泉・井의古訓이「얼」인證據로는 또한가지 자미잇는 實例가 잇다。

第二十二代智證王、於始祖誕降之地奈乙、創立神宮以享之
(三國史記、祭祀)

의「奈乙」의 義에對하야 여러史家들은 모다「날(日)」의 一致하여잇다。「奈乙」의 音이 偶然히「日」의訓과 一致함으로써 始祖와日과를 얻는 緣付하여 表然히 說함이 아닌가。[illegible] 新羅始祖誕降地는 三國史記、遺事가모다

蘿井

傍이라고 明記하엿다。即「奈乙」과「蘿井」과는 合해 同一한것이오、「井」의 古訓이「얼」이매、兩者는 모다「내얼」이니 奈乙은곳 蘿井의 寫音인것을 알수가잇다。「蘿」를「내」로 읽음직한 한가지傍證은「蘿」字를「내」로 읽는것인데、저 遺事元曉不羈條의

「諺云……聲旣緣而月滿、適過此谷栗樹下、忽分産、而倉皇不能歸家、且以夫衣掛樹、而寢處其中、因號裟羅樹」

의 裟羅樹는「사내나모」의 寫音이다。

以上、「於」는「어」訓故로 [illegible] 로 읽지안흘수가 업스니、그러면 그뜻은 무어일까。鄕歌中에서 그類語를 찾건대、

伊波 普賢行願 ([illegible])
再衣身 伊波 人音有叱下呂 ([illegible])

가잇다。博士는 前者를「이바」、後者를「인바」로 읽엇스나、나는 同一語를 異讀할것이 아니므로 音대로「이바」라 읽는다。그뜻은 前記「이어의안」(伊於衣波)와 同一한 感嘆詞로서 近世의「어화」「어와」「이보아」(歌詞의 冒頭나 中間에흔히 使用됨)等의 前身이든 感歎詞라 생각한다。上揭二例에서「伊波」가 文의 冒頭와 中間에 쓰여진것을 보면 그것이 確實히 間投詞임을 알것이다。

쏘시알리스틱 레아리즘提唱後의 朝鮮文壇의趨向 ⑤

安含光

그러나 이러한 리아리즘의歪曲된文學的實踐(!)그것은 비단 氏에게만 局限된事實은아니다。朝鮮의作壇이가지는 唯一한勞働者出身의 作家이자 嚴氏와가티 雙手를드러 쏘시알리스틱、리아리즘을歡迎하야 自己의作家的信條로한다고

宣言 하는 李北鳴氏의近業에서도 端的으로 나타나는바 遺憾되는事實이다。

朝鮮의作家들은 一定한時代에잇서서의 創作方法에對한 血肉的인 理解를가지지못하고 푸로레타리아리아리즘에서 唯物辯證法的創作方法에 이르기까지 消極的히 流入되는 外來理論의 [illegible]의 加壓미테 그神經을 整頓하지못한채 절절매다가 이제 새로운 創作方法의 提唱의 階段에서서 冷靜한 理智的 反省를갓고 그러다면 새로운 創作方法은 在來의 創作方法이 包括하든바 具體的 內容과는 어느모(方)가 어떠한 形態로 다르며 그의 抽象的 條件은 어떠한가(?)하는 眞摯한 探究의 마당에서 眞實로 深刻한 懷疑를거듭하는 作壇의 雰圍氣가운데서 敢然히 그 누구보다도 먼저 氏가 先見的인 確信밋헤 소시아리스틱、리아리즘에 對한 全幅的인 實意를 갓고 그를 創作的 信條로 할것에 對한 斷乎한 마니페스트를 보낼때우리의期待는決코 적지가안헛다。그는 어제날까지 唯物辯證法的創作方法에對한 積極的歡呼의 삐라를

撒布 하면서 祝賀받는저날리즘의 上空을飛翔하든評家가 不過二三페ー지로「ナルプ」誌上에紹介되엿든 소시알리스틱、리아리즘에 關한 [illegible]田進의 斷片的言에 接하자 대번에 在來의 創作的 슬로ー간의 意義를 無下로 둘러보낼것을 强調하든 輕率이라든가、또는 좀더 갓가히는文、評誌의 이구석저구석을 細工하든文學的雅氣의「ヤキマシ」的粕粕으로서가아니라、氏야말로 眞實한作家的資格으로서 在來의創作的슬로ー간이制限해하든時代에잇서서 눈겨온든바 모ー든不自由와不滿、그리고懷疑를 最大限度로 揭驟할現機가되엿슬것이기때문이다。다시말하면 이른바 在來의 創作的슬로ー간이 內包한 樣式的主義에對한 不滿과 苦悶을、批評家보다는 보다 갓가운 肉身的인接近性에잇서서 天겨와슬터인 作家의새로운信念은、그의活路를、그의文學的實踐에잇서서展開해줄수잇는것이기때문이엇다。이리하야 在來의創作的슬로ー간의 缺陷에對한 肉身的인切感에서진저리치다가、마춤내 새로운創作的슬로ー간의

黎明 을向하야歡呼의첫거름을내드든作家의文學的行程(!) 그것은마치 不自然한[illegible]과岩石의外的制約에依하야 그順路를踰碍當하든 山谷작이의칩흠이 드듸어 自由스런 大海의 咆哮를 이루든거와가튼 廣汎한世界에로의 意欲일것이며 씩씩한呼吸의 力學的인律動이아닐것이엇든가?

이러한意味에서 李北鳴氏의近業에 마춘注目과 期待를가저왓슴에도不拘하고 그結果가·앗가말한바와가치 리아리즘의 歪曲된文學的實踐으로 나타나는것은 저옥이 論어할現象이아닐수업다。氏의 最近의作으로서 朝鮮文壇誌의「어리석은사람」과 新東亞誌의「閑南의生活表」를 보자!

前者에 關하야는 암이 李源朝、金南天氏의 各其正當한 批評과 後者에關하야는 筆者 그의 批評을 試한바잇기에 이곳에서는 그以上더 細部的인말을하지안코하나氏의 作品을 貫通하는바 看過치못할 特徵의하나로서 筆者는氏가 리아리즘을 理解함에잇서文學以前의 現實探究的情熱을

疎外 한單純한手法化에露骨이하고잇는것과또하나는 새로운文學에잇서서의典型的性格이라는것、다시말하면엥겔스의이른바「典型的인 事情에잇서서의 典型的인 性格」이라는것을 現實的事件의 메카니즘을通한對立的社會層에잇서서의 對立的性格으로서가아니라 人間性一般에잇서서의 對立的性格에다 換置해버리고만다는것을 指摘하지안흘수는업다。後者의가장露骨的인表現을「어리석은사람」일것이고名譽를지못한 前者의 代辯者는「閑南의生活表」가 아닐수업슬것이다。

漢詩

桐岡考選

迎春—押生

二等　大阪市 方秉準

雪後江湖春意生
東窓睡覺賦新晴
遙憐故國山河在
其奈殊方歲月更
傍人猶笑尭衣着
往事深知股鑑明
短髮添年歸未定
漢梅岸柳總傷情

評日 可見其老練手筆

【訂正】昨日附 林興周氏詩中에 第一句第二字「遙」는「遇」으로同第四字「臨」는「陰」으로同第五句「以」는「北」으로 第五句第四字「綠」은「綠」으로 第七句 第二字「堂」는「當」으로 訂正함

最近科學의發展 3

鄭槿陽

다음 古典電磁論을 量子化함에 依하야 光의 量子論이 樹立되엿다。그리고 이理論에 잇서서도 光量子의 時間空間的運動을 因果律에 依하야 理解할수는업고、오즉 이것을 確率的으로 表現할수잇슬따름이다。

電子 또는 光量子의 時間 또는 空間에 잇서서의 位置를 어떤精確度로 表現될때에는 그 에널기ー及運動量은어떤 範以下의精確度로는 表現할수업다는것이 하이젠벨그의 不確定性原理이다。不確定性原理는 量子論의 物理的內容을 簡潔히 表現한것인대 量子論에잇서서의 實驗結果와完全히 一致된다。

電子의 位置를 觀察하라면、極히 波長이짧븐光、例하면 갑마線을 비치여야한다。그리고

이反射光을 바드라면은

눈으로는 不可能하고 寫眞作用을利用하여야한다 이러한 電子觀察裝置를 갑마線顯微鏡이라고 불르기로하자。

이때가장重要한것은 電子를觀測하라면 아무래도 觀測의 主體인갑마線과 有限에널기ー運動量과의交換이 必要하다는것이다。이交換되는量은 量子現象特有의粒子的不連續性이잇는까닭으로 이것이 無視할수업시큰量이라는것 또他面 量子現象特有의 半面인 波動性이잇는까닭에 이交換되는量이 原則的으로 精確히알수는업다는 이두點이 不確定性原理의主眼點이되여잇다。古典論에잇서서는 그主體가 被觀測體에미치는影響은 無視할수잇거나 或은 그量을精確히求할수잇서 이것을補正할수잇다。그런故로古典論에잇서서는 觀測體와 被觀測體와를完全히區別할수잇다 量子論에잇서서는 古典論의因果律은適用되지안는다。단지 確率의 分布換言하면 統計的狀態란는 것으로 解釋하면 量子論에서도 因果律이成立된다。그러나 從來의因果律과는 그內容을 달리한다。巨視的現象이라는것은

거긔나타난 量에對하야

所謂프랭크의 量子常數H가 無限이적다고 생각할수잇는것이요 顯微鏡的 現象에 잇서서는 H를버릴수 업슴마치 微細한量이 出現한다。이가튼顯微鏡的 領域에잇서서는 上述한바와如히 觀測者와 外界事象과사이에 반드시 恒常 相互反應이잇서 觀測對象인 纖細한現象에큰 影響을 미치게된다。即、顯微鏡的現象에 對하야는已知인當初狀態 로부터 어떤體系가發展할狀況을 嚴密히 豫言할수는업게된다。웨인고하면 知新한 瞬間의位置를 하라면、모量은同時에 知悉할必要가 잇는까닭이다。

最近아인슈타인博士는 現在의 物理的實在와 量子力學的敍述이 果然完結된것인가 아닌가에對하야否定的인 意見을發表하엿다고 한다。物理的實在는 理論과는全然無關係인 客觀的存在라하야、物理的認識과 理論에는全然無關係인客觀的인 實在와사이에는、區別이잇서야 될것이다、即、實驗結果와 그의理論的敍述사이에 差別이잇다는것에 注意하여야 될다고 말하엿다 物理的實在의 各個의要素에 對應할 物理的量이 全部確定되는 理論이래야 完全할려인대、現在의量子力學은 이 意味에잇서서 完全하다고는 할수업다고 結論하엿다。

物理學的實在란 무엇이냐。한 體系의狀態를 조곰도 어즈리지안코、確實히物理學量의

價値를豫言할수잇슬때

에 이物理學量에 對應하는 物理學的實在의 한原素가 存在하는것이다。이러한 鑑別法을따르면、物理學的實在의 量子力學的敍述은 完結한것은아니라고 論斷할수잇다。設或非交換的인 數學量 일지라도、理論이 完全하야지면、兩量은同時에 物理學的實在에相應할것이라고「아인슈타인博士는 말한다。

×

形과色에 何等의關係도업는記號로서 規約的으로 表現하는것이 新量子力學이다。우리들은 物理學的現象의、좀더直接的인概念과敍述을 바라는바이다。「아인슈타인博士는 이것을바라마지안는한사람이다。電子가方程式인 現在의 狀態에滿足할수업다는것이다。이偉大한創造的天才가、將次어떠한理論을 案出할넌지 想像조차하기어렵다。

量子力學者는、只今計算局에드러잇는人間으로서 滿足하지는안흘것이다。困難을[illegible]고、참된 表現에達하려고、努力苦心하고잇을것이다　—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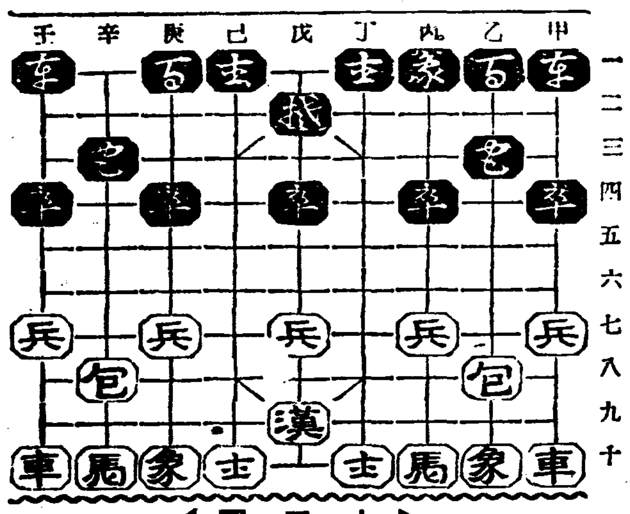
新刊紹介

▲昭和十一年 朝鮮鐵道一班 京城府古市町十四ノ二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朝鮮鐵道協會會誌 一月號 京城府古市町十四ノ十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被服 一月號 東京市王文區陸軍被服本廠內 被服協會發行 振替東京七六〇一七番 定價三十錢送料四錢
▲次代の朝鮮 一月號 東京市神田區駿河臺二ノ一 朝鮮協會發行 振替東京一五八〇二番 定價十錢
▲更生 一月號 廣島縣絲崎町日本赤十字社廣島支部絲崎療養所內 更生社發行 振替大阪七七五三二番 定價十五錢
▲中央 新年特大號 京城府堅志洞一一 朝鮮中央日報社發行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別冊附錄 한글綴字要覽無代進呈
▲ローマ字 一月號 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丁目十二 帝國劇場事務所內 ローマ字ひろめ會發行 定價二十錢
▲朝鮮工業協會會報 一月號 朝鮮工業資源展覽會 全朝鮮工業者大會記念號 京城府長谷川町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三十錢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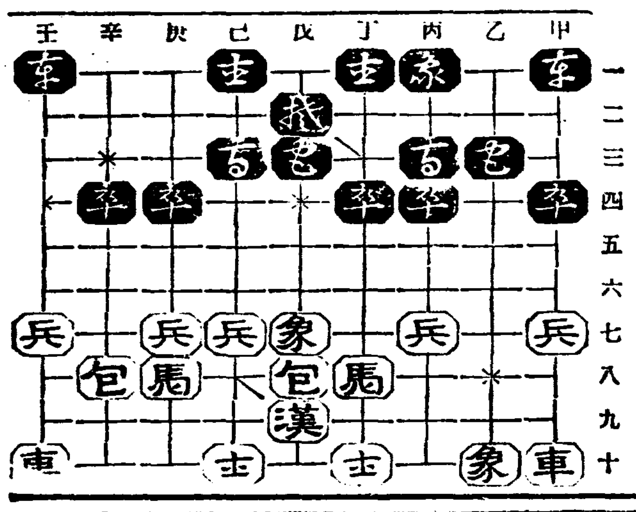
楚先手 一象義 李在鳳　漢 丁奎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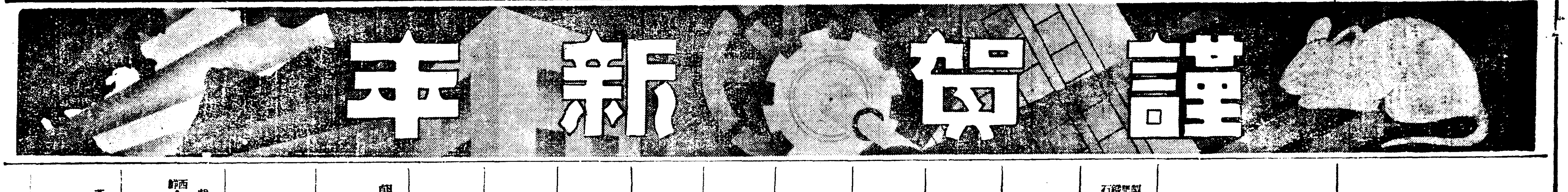
◀始局圖▶



◀十手圖▶

壬三〇一辛三　丙七馬一十八　庚一〇一二三　乙六包一戊六　乙一〇一丙三　戊七兵一己七　辛三〇一戊三　庚七象一戊七　戊四〇一十四　辛十馬一庚八





載寧

製造元 大平釀造株式會社　發賣元 三井物産株式會社　高級燒酎 英月特約店 大東商會 黃海道載寧

載寧タクシー　載寧賃貸荷物車部 電話二七番

黃海道載寧 製材原木 肥料農具 鋼鐵金物 石炭油類 鄭寅材木商會 主 鄭寅喆 電話二五番

黃海道載寧 閔丙德

黃海道載寧郡載寧面菊花里 株式會社 載寧菊花釀酒場

朝鮮商工株式會社 新換浦自動車部 電話五七番

載寧邑柳花里 中華料理 利生源 電話六二番

載寧郡南栗面新延里內新洞 興風會員一同

載寧稅業署

載寧邑內 載信水利組合

載寧邑內 安寧水利組合

黃海道載寧 諸穀貿易 吳國煥商店 電話五十一番

朝鐵載寧 自動車營業所 電話一〇四番

載寧明新學校

載寧邑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朴容眞

黃海道載寧 日新組合 電話六十三番

無名氏

載寧邑內 大昌商會

肥料農具 不動産 各種石油 스탠다ー드石油一手販賣店 共成商會 電話一九番

載寧郡南栗面海昌里 金仁洙

載寧郡南栗面事務所 職員一同

載寧郡南栗面海昌里 尹世容

載寧郡南栗面新延里 張亨鎭

載寧邑內 中華料理 福生園 電話一〇八番

黃海道載寧 金石商會 電話二十三番

載寧面事務所 職員一同

載寧南栗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載寧邑內 中華料理 修養園 電話三五番

載寧郡南栗面海昌里 金瑞[illegible]

晉州

晉州文山 金琪台

000074

晉州實業春秋會

晉州朝鮮酒酒造組合

晉州邑水晶町 河泳珍

晉州郡平居面貴谷里 鄭泰奭

晉州邑蓬萊町 徐相弼

晉州邑本町 金斗台

晉州郡奈洞面三溪里 朴奎錫

晉州邑本町 河萬濮

晉州邑東鳳町 辯護士 洪鍾律

晉州邑錦町 正陽堂乾材藥房 電話一四六番

晉州 河信商事株式會社 電話一五二番

晉州 清水合資會社

晉州邑東鳳町 嶺南藥酒製造株式會社 電話二四九番

晉州郡農會

晉州邑蓬萊町 李炳冕

晉州邑榮町 文星堂 電話一一六番

晉州邑錦町 趙琪洪醫院 電話一四八番

晉州邑榮町 共濟醫院 電話一四二番

晉州邑錦町 內文醫院 電話一四一番

晉州邑東鳳町 鳳山藥院 主 崔明鶴

晉州邑 李炳和精米所 電話二一六番

晉州邑西鳳町 晉州酒造株式會社 電話三〇八番

晉州邑東鳳町 中華料理 群賢館 電話一〇九番

晉州邑水晶町 朝鮮料理 京城館 電話一四三番

晉州邑 太和醫院 電話二五五番

晉州郵便局前 健康堂藥房 電話二三七番

晉州邑西鳳町 鄭台範

晉州邑 朴明吉 月星洋服店 大昌旅館 正信商會

豐基

慶北豐基 豐基人蔘 發賣元 豐基蔘業組合 豐基分局長 李南均

慶北豐基市 榮豐旅館 主 權在七

慶北榮州郡豐基面城內洞 韓德履

豐基邑內 三光醫院 尹明烈

豐基金融組合 理事 沈吉燮

豐基官公吏一同

榮州郡豐基面城內洞 崔[illegible]

慶北豐基市 旺興堂時計店 主 宣鎬成

慶北豐基市 豐一館 主 李有順

慶北豐基 豐基金融組合 理事 全奭鎬

慶北豐基市 綢緞布木 活泉社 主 金泰斗

慶北豐基市 三南醫院 主 李允敏

慶北豐基市 豐基乾材藥房 主 李炳台

慶北豐基市 酒造組合

慶北豐基市 朝鮮料理 忠州屋 主 金聖玉

黑風【220】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참사랑 (四)

「사람은 이런자미가 아니면 살맛이 업는것이엿다.」

왕한은 혼저스말 비슷이 말하얏다

「무슨 자미요?」

창순은 이상한듯이 무럿다

「이런때 술한잔 먹는 자미요」

「항상 잡수시는 술인대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자미여요?」

「항상먹는 술이라도 이런때에 이러케 먹는 술은 특별한맛이 잇거든이오」

「술은 다 일반이지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러한때에 청치안는 술을 창순씨가 스스로 가지고 오신것은 이것이 이른바 인정이오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지기입니다 지기라는것은 반듯이 천하대사를경륜하는데만 잇는것은 아닙니다 이 상은 모순뿐이오거정뿐입니다 이러한 오탁악세에서 이러한 인정미를 맛보지 못하고서야 무슨 맛으로사라갑니까 밤낫 국가니 민족이니 혁명이니 그것만 찻고서 조금도 위안되는 구석이 업스면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견댈수가 업겟지오 사실 나는 오늘저녁가치 맛잇는술을 몃번 먹어보지 못하얏습니다」

하는 왕한은 머리를 드러서 사방을 둘너보더니

「아! 조타 참조타 한잔 더 먹어야지 이러한술은 백잔이라도 부족하지 한잔두잔 할것이 무어잇나요 병채 이리 주시오」

하면서 창순이가 미처 집어주기전에 자기손으로 술병을가저다가 병채 거울너바렷다

「천고에 소상강가에서 술을마신 사람이 수가 업겟지마는 나처럼 행복스런술을 마신사람은 드물것이다」

하고 다시 창순을 도라보면서

「창순씨! 나는참 행복스런 사내입니다」

하면서 창순의손을 잡고 흔든다

「선생님 취하섯서요? 웨 쓸데업는 말슴을 하서요 행복이 무슨 행복이여요 저때문에 선생님이 행복이서요?」

하는 창순은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왕한을 보앗스나 입설에는 술은 우슴이 흐르고잇섯다

「내가 취하긴 취하얏스나 술에 취한것이 아니라 행복에 취하얏습니다 그리하야 나의 말은 주정이 아니고 인정입니다」

왕한은 창순의손을 더욱 굿게 잡엇다

「밤이 깁헛스니 고만 가시지오」

하는 창순은 모든것을 지며 가지고 이러나서 머리를 들고 기운을 떠면서

「창오산 지는달에 울고가는 저 기럭아 비파스소리 끈첫는대 너어대로 날어가나 소상반죽 남은흔적 아황녀영 눈물인가 청추에 한만흔 사람 그들뿐 이 아니려만 수어시 뿌린눈물 강을따라흘넛는가 반만년 우리조국 기우려진 대들보를 뉘라서 괴일손가 아마도 사억마인 건질사람 님뿐인가하노라」

하고 부르는 창순의 소래소리는 강언덕에 반향되면서 끗업는 공중으로 사라진다

「아황녀영 어따두고 순이군가 단말가 그들의 눈물내어 대마다 아롱지니 뉘라서 순인군을 어진사람이라 하더뇨 차라리 님가신뒤에 나의눈물을뿌려서 반죽의 아롱진점 시처볼까」

왕한은 지체업시 창순의노래를 화답하얏다 그러나 왕한은 졸구이발로 그노래를 부를때에는 창순이를 위로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얏는데 급기야에 뿔노노코 다시 생각하야보니 창순에게 대하야 상서롭지못한 의미가 되얏스므로 길히후회하고 창순에게 미안하얏스나 그뜻을 다시 뇌어서 말을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면 도로혀 창순에게 불안을 주는것이되겟스므로 다른말로 그것을 흐려버리랴고이 소리 저소리 하얏스나 창순은 왕한의 노래에대하야 그것이 고의라고 는생각지 아니 하얏스나 그것이 무슨 언참이나 아닌가하야서 다소 불쾌를 늣끼엿다 어깨를 겨주어 도라가다

海外片信

쉑스피어會議

【모스코發聯合特信】모스코에서는 去年十一月廿五日로부터 二日間 蘇聯有數의演出家、劇作家 批評家、文學史家等 모든 權威가 모이어 쉑스피어會議를 開催하엿다 그會議에서는 쉑스피어에關한 六個의報告가 提出되야 쉑스피어의文學史的硏究、쉑스피어劇上演問題等 各種의角度로부터 議論되어討論되엿다。蘇聯劇壇十八年間에 쉑스피어作品은歷史年代的劇場을 除하고 거의全部의作品이 上演되얏다고 하니 蘇聯에잇서서 쉑스피어熱을 推測할수잇다

라디오

八日 (水曜)

◇午後六時 童話 금동의孝誠 李亨禎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運命에對하야 梁白華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의展望(六) 金同溶
◇…野談의밤…◇
◇同八時 一、 車靑吾
◇同八時三〇分二、 庾秋岡
◇同九時 三、 申鼎言

九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줏모리 (나)엇모리 二、倂唱 (가)短歌 公道難 (나)唱劇調 록기타령 鼓手 丁元燮 成錦花
◇同三時一五分 婦人講座(四)
◇同六時 四重奏 京城四重奏團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갈닐레오의思想과時代 趙炳俊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의展望(七) 具滋玉
◇同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방아타령 五、도라지打鈴 六、靑春歌 玄山玉 洋琴、李承煥 細笛 高載德 短簫、崔壽成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스나타 E短調…루빈슈타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아파쇼나토 第二樂章 안단테・라르가멘테 第三樂章 모데라토 第四樂章 모데라토
◇同九時〇分 映畫이야기 J・B・스루데니 柳寅成

十日 (金曜)

◇午後〇時五分(東) 吹奏樂 一、行進曲「祝賀」…베ー토ー벤作曲 二、交響曲「軍隊」…하이든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알레그로 第二樂章 알레그렛토 第三樂章 메누엣트・모데라ー토 第四章 휘나ー레・프레스토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三時一五分 婦人講座(五) 家庭改良
◇同六時 三重奏(二回) ー世界音樂巡禮ー 京城三重奏團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하듸의創作世界 李鍾洙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의展望(八) 丁正烈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天歌 二、唱劇調 楚漢歌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博物打鈴 三、격양가 四、金剛山打鈴 五、開城難逢歌 六、양산도 崔貞植 細笛 李忠善
◇同九時 雅律 靈山會像 玄琴 李彦積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鄭載箕 杖鼓 李章夏

曆

一月九日 (木)
十二月己丑(小)十五日
破寅・木・角・除
●移徙裁衣動土上樑辰時納財安葬 啓攢에宜함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謹賀新年

南原

南原邑事務所 職員一同
山東面事務所 職員一同
朱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山內面事務所 職員一同
金池面事務所 職員一同
帶江面事務所 職員一同
寶節面事務所 職員一同
雲峰面事務所 職員一同
阿英面事務所 職員一同
王峙面事務所 職員一同
二白面事務所 職員一同
水旨面事務所 職員一同
松洞面事務所 職員一同
大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巳梅面事務所 職員一同
德果面事務所 職員一同
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南原米穀商組合內
大昌精米所 電話一〇六
細野精米所 電話一〇一
南原精米所 電話一〇八

南原
三上吉隆
阿部小入
辻護一郎

全羅北道南原郡內 初等學校職員一同

南原郡校 職員 李東器

南原本町通 家具部 洋品部 食料品部 化粧品部 カスコン部
南原百貨店 主 盧益斗

南原郡巳梅面 柳圭鉉

南原市場通 李根相酒造場 電話六二

南原麵子組合

南原驛前 汽車運送 ㊀ 南鮮運輸會社 電話(三八番)
專屬運送 ㊦ 貸貨物自働車部 電話(四一番)

南原道立醫院前 東京屋洋服店 主 金鍾鎬

南原郡山內實相寺
南原郡山東面歸政寺

南原砂防事務所職員一同
巳梅砂防事務所職員一同

南原裁判所
司法書士 鄭仁柳
司法書士 韓相鉉
司法書士 李顯哲

南原市內
太陽寫眞館 電話五五番
南原寫眞館 電話二四番

南原郡東面 朴淙宣

葵樹金融組合巳梅支所
副理事 鄭完喆
書記 金應星
書記 姜大元

南原天主敎會 神父 石鍾寬

中樞院參議 朴禧沃

全北道會議員 徐慶吉

南原郡廳職員一同

共和自動車運輸株式會社 南原營業所

朝鮮日報社南原支局 支局長 李斗用

南原鐵道醫院 院長 河龍鐵

南原邑 黃永權

南原郡寶節面沙村里 劉載敏

南原警察署

南原邑本町通 ヤンマ發動機各種機械代理店 自轉車元賣 金正龍商店

南原邑內南門通 洋品百貨 マルヨン洋品店 主 金富斗

朝鮮全北南原邑 南原劇場

南原本町通 芝山堂菓子店

南原稅務署

南原郵便局

南原金融組合

南原邑本町通 洋品百貨 福榮商店

南原産業組合 職員一同

南原郡金池精米所 主 金公鉉

南原裁判所前 張彰淳 電話七番

南原市場通 湖南藥舖 主 安致九

南原邑驛前通 金銀細工 印章彫刻 元興堂 主 李判準

論山

扶餘郡內山面 金池鑛山事務所
尹相覺
盧奉植
南宮璉

論山面鶯岩里 裵一煥

論山旭町八五 裵榮春

論山 月曜會

忠淸南道指定 河川測量社
論山 金聖錫 中範雨 李宋奎 趙哲濬

湖南線連山驛前 姜永植

論山勞働組合長 曺星煥

論山郡城東面定止里 尹夔炳

論山郡城東面定止里 盧奉植

論山邑長 尹胄炳

論山旭町 天誠堂醫院 主 郭海鳳

論山旭町 至誠醫院 金憲植

論山旭町 金鍾國

論山本町 尹吉重 姜永植 李殷序

論山郡農會

忠南論山本町通 蔘茸 唐材 直輸入 各郡散賣 有名洋藥 和一堂大藥舖 主 裵國煥

カフエーライオン

論山旭町 (電話四三番) 朝鮮料理 東洋館 主 李圭重

論山本町六八番地 司法書士 金炳鉉

無名氏

論山旭町 司法書士 金慶培

論山勞働組合

論山旭町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論山郡夫赤面長 金顯寶

論山郡夫赤面阿湖里 吳舜泳

論山郡 恩津面事務所職員一同

論山郡城東面定止里 東光酒造場 主 南宮璉

論山郡光石面新堂里 酒造業 徐承業

日本生命大田出張所 論山駐在社員 趙重基

論山旭町一〇一番地 朝鮮建築請負 並指物工場 金永哲

退潮

咸鏡線退潮驛前 ㊂朝鮮運送株式會社 退潮代行營業所

咸南洪原郡前津港 大主商店 韓震洙

咸南退潮 田中德吾

論山本町三三番地 土木建築請負業 任願澤

論山榮町一四九番地 第一旅館 主 劉學仁

論山榮町 朝鮮料理 鳳鳴館 主 李宗基

論山郡城東面定止里 尹相覺

論山郡恩津面豐山里 李尙器

論山旭町 朴貞來

論山郡論山面濟德里 金蘭洙

論山郡夫赤面阿湖里 金若洙

論山本町 光明電氣商會 主 朴達鉉

湖南線論山本町 綢緞布木及裁縫店 趙重煥

帝國ミシン株式會社 論山郡代理店 中堅商會 主 金貞漢

論山面鶯岩里 裵鍾煥

論山榮町 李鳳甲

論山榮町 精米業 金東順

論山郡夫赤面新橋里 金鎔浩

論山郡城東面定止里 張柄曄

論山本町一〇〇番地 各種紙物 郡散賣商 三益商會 主 羅完根

咸南退潮驛前 綢緞布木 雜貨其他 權緯周商店 米穀部

退潮機船底曳網組合

退潮漁業組合

咸南退潮 李震錫

海州體育會主催 西朝鮮氷上競技 新聞記者[illegible]으로

【海州】 해주체육회(海州體育會)에서는 신년벽두에 금년첫사업으로 오는 일월십이일부터 해주신문기자단(新聞記者團)의 후원밋헤 시외선산저수지(仙山貯水池)에서 제일회서조선빙상경기대회(第一回西鮮氷上競技大會)를 개최하리라는데 그상세는 대개 다음과갓다한다

▲申込期日 一月十日까지
▲申込場所 海州體育會
▲申込金 三十錢
▲競技種目 五百米 一千五百米 五千米 一萬米 二千米리레ー
一、賞品 優勝컵

五年前暗葬이 投書로發覺

【仁川】 오년전의암장사건=부천군(富川郡)덕적면(德積面)소야리(蘇爺里)에서 잡화상하는 조창득(曹昌得)([illegible])은 오년전인소화륙년도에 그모친상을 당하고그즉시 공동묘지에 매장허가를밧고서 자긔집뒤산에 암장하얏든바 지난이[illegible]일 이에대한 투서가 인천서에 도착되야 지난륙일부터 사실조사하엿든바 틀님이업슴으로 엄중취조하야 처벌하리라한다

義州公普校에서 女子夜學開設

【義州】 의주공립보통학교에서는 이래수년간 녀자문맹퇴치에 전력을 다하든바 금년에도 동긔휴가를 리용하야 지난삼일부터 녀자야학을열고 갑을두반으로난호아 녀훈도륙인이 분담교수한다는데 교재는 보교일이학년것으로하며 참가한 학생은 약칠십명이라고한다

妙齡女의自殺

【金泉】 경북김천군 봉산면례지동 박길수(朴吉洙)의 장녀 금희(錦姬)(假名)는 지난 사일에 자긔방에서 목을매여 죽엇다는데 자살원인에 잇서서는 복잡한애정관계가 잠재한듯하다한다

火災二件

【長湍】 경긔도장단군진남면 동장리(津南面東場里)강복천(姜福天)의집에서 지난륙일오후하시경에 돌연발화하야 연소되는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 일대소동을 일우엇는데 이급보를 접한당지 소방조에서는 즉시출동하야 진화에 진력한결과 두시경에 진화 하얏는데 발화의 원인은 어린아이가 불때다가 실화한듯하며 손해는 칠십원가량으로 전긔 강복천은 삼년간 고용살리를하야 근근히집한채를 작만한거시 그만 소실되여 그가긍한 정경은 목불인견이라고한다

【亭淵】 지난 오일 오후십시경에 평강군 정연리(平康郡亭淵里)박종운의 집에서 불이일어나자 당지소방조원과 동민이 총출동하야 필사적 노력으로십시간만에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뒤깐재에서 발화한것이며 엄동에 어려운 홀아비와 어린것오륙인의 살길이 막연하다고한다

地方人事

▲藤田四郞氏(平安南道農務課技師) 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異次頓의死 【76】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수포교는 다시 유심히 이차돈을 보며,

『우리가 잡으랴는 살인죄인의 나이 꼭 이 사미(沙彌) 만 하고』

하고 다리고 온 포교들을 돌아보면서,

『눈이 가느스름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희고 입설이 붉고 그러터라지?』

하고 묻는다.

『예 키도이만하고』

하고 한 포교가 이차돈을 보고 대답한다.

『오 알앗소 알앗소』

하고 늙은 중은 무릎을 치고 웃으며,

『그런 사람이면──칼 차고활 메고 신라사람가티 생긴 사람 아니오?』

하고 수포교에게 묻는다.

『바로 노장 말슴과 갓소. 노장이 그런 사람을 보섯소?』

하고 수포교의 눈은 늙은 중에게로 옮아간다.

『옹, 올치. 사흘전이더냐 나흘전이더냐』

하고 이차돈에게 묻는드시 말하고는 그 대답도기다릴 필요가 업다는드시,

『올치 나흘전이로군. 내가 홍복 갓던 길에 자라여울에서 눈ㅅ속에 빠저서 꼼작못하고 잇노라니 웬 사람이──지금 말과 가티 저 놈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름을 타고 한개를 건너려고 하는것을 이몸이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하고 불럿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몸을 눈ㅅ속에 끌어내고는 길이 밧브다고 실타는것을 이몸이 사람을 살리라고 매어달려서 이몸을 업고 웅천암까지 온 일이 잇송. 그럼 그 사람이 로군. 대단이 길이 밧브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내고, 이몸더러 염체업는 늙은 이라고 하고는 세번이나 이몸을 동댕이를 치공. 하하하하. 아직도 이엉뎅이 얼얼하거든. 그래 그러커니. 참말 그 사람이 저 놈 닮앗거니. 따는 짜징도내게 되엇서. 꽁꽁 얼엇던 이몸이 그 사람의 등에 업히니까 몸이 녹아서 잠이 오길내 코를 끌고갓단말야. 그게 꼴이 낫던 모양이어든 하하하하』

하고 늙은중은 참아 우수워못견될드시 허리를 굽혓다 폇다 하며 웃는다.

수포교와 다른 포교들도 늙은 중의 말에 덩다라 웃다가, 수포교가,

『그래 그 사람이 노장을 업고 여긔까지 왓소?』

하고 아직도 웃음이 끗나지아니한 늙은 중을 본다.

『옹. 하하하하. 그 사람이 퍽으나 길이 밧바하는 모양이지마는 이 몸이 놋나. 헐수업시 여긔까지 이몸을 업어다놋코는 땀을 뻘뻘 흘리길래 젊은놈이 고마일에 땀을 흘리느냐고, 어서 물이나때고 밥이나 지으라 고햇더니 밥을 지어왓는데 더러는설고 더러는 눌지안앗겟나. 한입물엇다가 그친구의 낫바닥에다 탁 뱃햇더니 칼을 빼어가지고 뎀비단말야. 그래 이 주장으로다 한개단단히 때렷더니 하하하하』

하고 또 웃기를시작한다.

이차돈도 입을막고 킥킥킥 아니 웃을수가업섯다.

수포교는 웃음을 찝어삼키며,

『그래. 그리고는 그놈이 어듸로 달아낫서요?』

하고 그 결과를 알고십어한다.

『그래 냉큼 나가라고 소리를 질르고는 몸이 으스스하길래 한잠 자고낫더니 업서지고 말앗서. 아마 한개에 나가 어름ㅅ구멍에 빠저죽엇겟지. 그러케 망신하고 살수가 잇나? 하하하하. 그런데 그놈이 사람을 둘이나 죽엿서? 그놈에게죽는 사람도 잇으니 하하하하』

하고 늙은 중은 유쾌한드시 웃고는 이차돈을보고,

『이놈 나무하려 안 가고 무얼 보고 섯서? 저놈 좀잡아가시오』

하고 눈을 부르뜨고 소리를 지르며 주장을 들고 이차돈을 답릴드시 뛰어나온다.

이차돈은 매맞을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모양으로 수포를 향하고 달아낫다.

『가세』

하고 수포교가 부하들을 돌아보고는, 늙은 중을 향하야,

『노장 편히 게시오』

하고 돌아선다.

늙은 중은 아직도 섭난것이 갈아안지아니하는 드시 덜덜구르며 이차돈 가는 쪽을 바라본다.

謹賀新年

新泰仁

山外面平沙里 李東煥 李東昔 李東烈

本報新泰仁支局經營 進化自轉車店 主 金容南
特約車種別 기야엠파손號 기야엠太洋號 王冠벨돈號 빅타號 飛行機號 那智號 ナショナルランプ販賣

淨雨面山北里 梁承琯

新泰仁 金錦東

甘谷面芳橋里 兪祥先

新泰仁 泰仁醫院 醫學士 尹善旭 電話五一番

湖南線新泰仁驛前 永生醫院 公醫 鄭[illegible]鎭 電話三四番

新泰仁 印洋畵貨高級化粧品文具試驗場[illegible]染料部敎賣 新光商會 金[illegible]培

和洋雜貨文具紙物 文化堂 金炳圭

全北新泰仁本町 大盛洋服店 主 姜大郁

新泰仁 米穀商組合 組合長 富田正夫

山內面菱橋里 李元日

山外面平沙里 朴判壽

新泰仁面 職員一同

梨坪面八仙里 李官奉

梨坪面下松里 釀造場 主 李官奉

禾湖里 株式會社 熊本農場

金堤郡鳳南面[illegible]新里 許容燮

新泰仁 靑年洋靴店 主 [illegible]萬圭

新泰仁 朴榮求

梨坪面事務所 職員一同

井邑郡[illegible]面[illegible]事務所 閔丙晧 金善述

七寶面[illegible]谷里 金泳燮

新泰仁 赤木峰太郞

泰仁面事務所 職員一同

新泰仁 藥種商 賣藥請負業 化粧品 東亞藥房 藥學士 柳鐘植 電話一二番

新泰仁 趙楨顯

新泰仁 金敬[illegible]

新泰仁 李熙冕

ツツキ商會代理店 エルジン號 マルヱ號 キヤム號 ラーヂ號 共三自轉車店 主 金在先

井邑郡瓦東面事務所 面長 丁東秀 外職員一同

全北舊泰仁 司法書士 洪吉奉

甘谷面芳橋里 參禮釀造場 主 李重斗

禾湖里 李煥泰

七寶面 金東柱

新泰仁面六里 黃鎬機

泰仁邑 金河

甘谷面 盧共烈

泰仁邑 金在一

梨坪面斗池里 殷鍚基

新泰仁 安秉玉

禾湖里 田植太郞

甲韓料理 宋松栢

山外面五谷里 金溶鉉

七寶面詩山里 金永采

梨坪面八仙里 李益萬

梨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梨坪面 面長 金元載

泰仁面洛陽里 金庚玉

扶梁面 安永善

新泰仁 禾湖精米所 金炯昌

淨雨面梧琴里 振興會靑年團長 金永峻

瓮東面山城里 柳鍾元

甘谷面[illegible]興里 方俊日

金堤郡鳳南面龍新里 金在先

梨坪面下松里 金炳允

新泰仁 沈在南

甘谷面議員 柳碩斗

淨雨面事務所 面長 金道允

泰仁面洛陽里 金鎬衍

七寶面 武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七寶面詩山里 金洪燮

瓮東面梅井里 田炳演

七寶面詩山里 金[illegible]述

七寶面詩山里 金煥國

甘谷面龍郭里 李[illegible]漢

全北井邑郡泰仁面弓四里 湖[illegible]精米所 主 朴米文奎

新[illegible]里 李源根

淨雨面水金里 金載奎

黃寶性

楊檟里 郭東伸

淨雨面延江里 [illegible]應植

白南勳 南名鉉

新泰仁 申斗三

新泰仁 卓斗燮商店

甘谷面龍郭里 金成文

株式會社 朝鮮日報社新泰仁支局 顧問 姜甲秀 支局長 金容轍 局員 金容南 局員 金鍾大 詩山分局長 崔鳳植

店村

店村産業組合 電話六番

金龍本末寺聯合 慶興講院

大乘寺 住持 金敎煥 法務 朴石永 監事 嚴兌煥 書記 趙達成

慶北線店村驛前 店村酒造組合 組合長 李圭璇 理事 鄭輝憲

聞慶麵子組合

慶北線店村驛前 岡本醫院

慶北線店村驛前 三友商會

慶北店村 元和洋服店 李元燮 朴永和

慶北線店村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婚具一式 都賣散賣 金鍾煥商店

慶北線店村驛前 黃時寬

慶北店村驛前 李鉉烈

聞慶郡 加恩消防組

聞慶郡新城酒造場 丁海龍

加恩面旺陵里 鄭元澤

加恩面議員 金東奭

加恩面上槐酒造場 安米喆

聞慶郡山陽市場 高永秀

慶北店村 大同商會

朝鮮日報聞慶支局

山北面 金龍寺地方學林

山陽面事務所 高奭勳

聞慶郡虎溪面 職員一同

慶北線店村驛前 李壽岩商店

慶北線店村驛前 米穀商 金昌元

慶北線店村驛前 ㊄大興運送部

慶北線店村驛前 文東準

慶北線店村驛前 農具類金物石油商 金鳳九商店

虎溪酒造場 理事 徐廷鎭 會計 徐錫奎 書記 金容[illegible]

戶西南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麗水

麗水東町 江門科淋疾科 三省醫院 醫學士 李鳳煥 電話二四三番

麗水邑長 多田義一 外職員一同

麗水郡三山面巽竹島 李康聿

朝鮮麗水港 天一ゴム工業社 電話二〇二番 振替光山五三四八番 私書函六番

麗水和信連鎖店 金守玉 電話四三番

麗水中央醫院 電話二五〇番

全南麗水邑西町 合名會社 朝日織物工業社 電話二一三番

麗水邑西町 司法書士 吉啓煥 電話一一六番

西町酒造場 主 張再厚 電話一〇九番

共成精米所 李又憲

麗水齒科醫院 院長 金季洙

三山面巨文島 漁業組合 理事 禹鼎浩 外職員一同

三星洋襪工場 主 丁[illegible]根

鳶島漁業組合 組合長 金漢武 職員一同

麗水郡南面 職員一同

麗水邑西町 蔘茸唐草材貿易商 嚴翼駿

雙鳳面 郭鳳杜

麗水郡巨文島 漁業組合長 申大中

綢緞布木金銀寶貝 丁太鉉商店 麗水港西町市場通

麗水公立普通學校

三山面職員一同

三日面事務所 面長 金永宰

突山漁業組合 職員一同

麗水公立水産學校 職員一同

麗水西町 又華眼科醫院 院長 金相龍 入院隨意

麗水邑 邑會議員 南至星

南面牛鶴里 漁業組合長 明義淳

雙鳳面 面協議員 學校評議員 郭鳳彦

麗水麵子株式會社

三共精米所 主 吳敬允

雙鳳面蘇湖里 金容默

巨文島 物産客主 李厚根

巨文島 海陸物産委托販賣 申敬玉

突山面郡内里 金相連

南面心張里 漁業組合

麗水西町 大同醫院 電話二五二番

000076

土改事業中止와그實蹟
農民經濟本位인 日本內地와의比較
(三)……洪鍾仁

그런데 昭和八年까지의 事業資金의 支出狀況을보면 다음과가튼데 當局의說明에 依하건대 大體로 豫定計劃보다 減少된것은 土地改良施行前後豫定計畫에 達하지못한것과 또 工事材料及勞賃이 大槪豫定計劃時보다 低下한데 基因한다는것이다 (單位千圓)

區分	總豫定計畫額	豫定額	八年까지實績
國庫補助金	六九、〇〇〇	三七、九六八	[illegible]
企業者調達	三二、〇五〇	二五、〇四六	[illegible]
低利資金	一〇六、一七〇	一二〇、一五一	[illegible]
計	二〇六、三四〇	[illegible]	[illegible]

(以上의 實績의比率을보면 總計實績에對한實績의比는 國庫補助가四三% 企業者調達金五三%低利資金三六% 計三九%이고 八年까지의 豫定計畫에對한 實績의比는 國庫補助金七五% 企業者調達金七八% 低利資金六一% 計六六%에該當하다

五、國家的施設

本文의 題目이 土地改良事業의 中止와 그實績을 論하려함에 總督府當局의 政策에對한 多少의 批判이 잇슬것은 勿論, 批判을 加함에는 우에도 말한바 잇거니와 그政策이 日本內地 資本에 依한 朝鮮農業開發의 特殊使命을 擴出하지 안을수업다. 따라서 當局의 朝鮮的 特殊政策을 말하기前에 便宜上 日本內地에서 遂行되고 잇는 그것과의 比較를 말해두는것이 妥當하다고 所謂하고저 한다 總督府 農林局 調査資料의 「內地及 朝鮮에잇서서의 耕地改良擴張事業獎勵及 助成施設等比較一覽」에依하면 「朝鮮的特殊政策」을 어렵지 안케 發見할수잇다。

(以下 日本內地의 施設을標準으로 略記한다)

一、技術員及 事務員의 養成
二、調査, 設計, 工事監督에要하는 道府縣의 設備費에對한 國庫補助
三、開墾用器具의 貸與
四、農用機械管理所
五、農用機械借入費補助
六、機械使用法의講習
七、排水幹線等의 補助事業
八、大規模(五百町步以上)開墾地의國營
九、五百町步以上 ……地의用排水工事國營
十、同上改良工事의府縣營

日本內地에는 以上뿐가튼 施設이잇스나 朝鮮에는 全혀업다。

十一、調査, 測量, 設計, 工事監督은 國, 道, 府, 郡에서 施行함

朝鮮에서는 二百町步未滿은 道에서하되 二百町步以上은 東拓과 土地改良會社라는 特殊會社에서 代行하여다。

十二、補助

國庫補助中 一般助成金의支給은 新地整理에 一割 乃至 五割、用排水幹線改良事業 五割、暗渠排水改良工事 五割、開墾四割、等이고 時局匡救農業土木事業補助는 五町步以上 開墾에 四割、五町步未滿開墾에 五割、用排水幹線改良에 五割、小用排水工事에 五割、暗渠排水工事에 五割、小開墾으로 道路、農道、井堰、溜池等 工事에 五割等이 잇는데 朝鮮의 國庫補助는 前項에도 말한바와가치,

一、畓의灌漑排水改良事業에 二割以內 二、田을畓으로 地目變換하는데 二割五分以內、三、田以外의土地를 畓으로하는데 三割以內、四、海面又는 水面을 埋立또는干拓하여 畓으로하는데 五割以內로以上의 補助가 잇슬뿐이며 地方費補助로보면 日本內地에서는、

一割乃至三割程度로 하여國庫補助와合하여 七割乃至八割程度이여서 日本內地에서는 國庫와 地方費로 二重의補助를 하고잇다。

그런데朝鮮의 地方費補助는 土地改良事業補助規則에 該當지안는小規模의것인 三十町步未滿또는 工事費五千圓未滿의것에 限하여 大體工事費五割을 補助하되 그額數의半分은 國費에서 還付에補助케하여支給한다、다음에

十三、事業資金으로보면 日本內地에서는 耕地整理組合에서 補助金을 控除한 그남어지 거의 全額을 預金部資金으로 融通을 밧게되엇스나

朝鮮에서는 總事業費에서 補助金額을 控除하고 그남어지의額을 預金部資金、또그半額은 東拓及殖銀의 普通資金의 融通을 밧게되엇으며 前項에 說明한바와갓다。 그런데 그貸出利率로보면 日本內地에서는

1、預金部에서 直接貸出하는것은 年三分二厘
2、預金部資金으로서 銀行을 經由할때는 年三分九厘
3、簡易生命保險積立金을 融通할때에는 年六分二厘
4、新地整理組合의 債券發行
5、銀行普通資金 年六分九厘

等의 融通方途가 잇는데 朝鮮의 事情을 보면 以上의 農民에게 가장 有利한 低資인 預金部에서 直接貸出되는것은 朝鮮에업고、

1、預金部資金으로서 銀行經由하는것은 預金部에서 三分九厘에 引入하여다가 四分八厘에 貸出하되、銀行自己資金의 七分九厘利率을合하야 平均 六分三厘五毛에 貸出하는것이 一切 업다

◇

大略 以上에依하여 日本內地의土地改良事業에對한 國家的施設과 그助成方途는 보다 더 農民經濟를 爲主한것임을 알수잇스며、朝鮮의그것은 農業資金의 活動을 爲主한 農業開發이 아닌가하는 感이잇게 한다

今日財界(八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九五二	不變
大阪期米 先限	三一七一	三高
仁三等米 二石	二八六五	不變
京城 二等米 ……石	三一〇〇	不變
正租(仁川) 上	(八錢四厘)	
一斤 價 下	(八錢二厘)	

◆市中金銀價
	一匁買	二匁買
金	十二圓七十錢	十二圓五十五錢
銀	三十二錢四厘	三十一錢三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三〇八〇	不變
東新	一六五二〇	二〇低
日産	七四七〇	二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一九四五〇	五〇低
大阪棉花	六〇〇〇	四〇低
大阪人絹	一五八〇	四高
大阪砂糖	一三三	九高
고무現	四十四錢五	先四十錢五

朝鮮內四支店銀行 買收合倂으로統制
理由는朝鮮內銀行完備로 金融機關의整理上

朝鮮의金融統制策은 이미 着手한지가 오래되엇고 또는 그동안 普通銀行의 合倂이 相當히 進行되야 第一段의 統制가 完了하엿다 그래서 압흐로는 第二段의 統制策에 안드러갈수업는 情勢에일흔바 即朝鮮內普通銀行의 合倂이 全然完了되것이 안님으로 今後에는 最終的合同의 時機를 기다리는傾向이 잇고 一面으로는 朝鮮內에잇는 現在의 銀行으로서 朝鮮內金融機關이 足할뿐만이아니라 도리어整理의必要를 늣겨 이미 그것이 進行되여오는 이때에 所謂支店銀行이 京城에第一을 비롯하야十八、安田、三和等 支店銀行이 잇고 또 그밧게 京城外의 朝鮮內各地에도 그支店이 잇는것은 朝鮮의 銀行界에 影響을 밋치는바가 大함으로 結局 이 四支店 銀行을 閉鎖케하랴는것이다 그러나 金融機關인만큼 急遽히 이에 손을 대이면 朝鮮內金融界에 影響이 잇슬가하야 總督府財務局에서는 될수잇는대로 急進을 避하고 또는雙方의 妥協에依하야 第一、十八、安田、三和等 四支店銀行을 買收 整理하기로 되엇다

그래서 이첫거름으로 別項과가티 十八銀行의 朝鮮內九個所支店營業 一切를 殖銀에 引繼케되것이다

"整理할時期" 雙方妥協이면
◇……財務局側意向

日本內地銀行支店 廢鎖問題에 對하야 總督府財務當局者의意見을 들으면 아래와갓다。

過去는 朝鮮自體의 銀行機關이 不足하얏든 때문에 日本內地銀行朝鮮內支店들의 貢獻이 만엇고 그에 依賴한바컷섯스나 今日에 至하야는 地場銀行의 實力이 相當케 되엇슴으로 當케 되엇슴으로 金融統制上見地에서 本內地銀行의 朝鮮內支店을 整理할 時期에 到達하얏다고 생각한다。從하야 方針은세우지 안엇스나 雙方의 妥協이되고 事情이 許한다면 第一、安田、三和等의 朝鮮內支店도 買收整理케 될것이다(云云)

十八銀行支店閉鎖
朝鮮內九個所支店을 殖銀에全部引繼決定

【長崎電話電通】長崎에 本店을 둔 麾下各地及 朝鮮內九個所에 支店을둔 十八銀行은 政府의金融統制策에 基하야 朝鮮內에서 日本內地銀行이 支店을 設置하고 營業하는것은 朝鮮內 金融統制上支障이잇다는 見地上 銀行局의 勸說에 從하야 朝鮮內各支店의營業一切를 殖産銀行에 讓渡키로 決定하고 지난六日그 認可를申請하엿는데 二三日中에 認可의指令이 到達할모양이며 同銀行에서는今月八日株主總會를열고 閉鎖決定을 기다려 二十九日로부터朝鮮內各支店을 一齊히 閉鎖키로되엇다 그리고 九支店在勤行員은大部分 殖産銀行에서採用케하야 幹部는內地로方針이라고 한다

▲註=長崎市에 本店을둔 十八銀行(資本金千五百萬圓、拂込八百六十二萬五千圓으로主로中國 朝鮮貿易에關한銀行業을 取扱할目的하고創設된銀行으로서 第一銀行에뒤이어 明治二十二年에進出하야 지금은京城에는黃金町、元町、漢江通三處에 地方으로는仁川、群山、木浦、羅州、釜山、元山等地에合九個所 支店을設置하고잇는터이다。

(寫眞은 京城黃金町 二丁目에잇는 十八銀行支店)

▲支店當局言明迴避 市內黃金町에 잇는十八銀行支店當局은 朝鮮內支店廢鎖에 對하야 아모通知도 업슴을 알지못한다고 對答하얏다

合倂은二月頃
支店新設치안허 殖銀當局者談

買收의 事實은 否定치 안호나 仔細한것은 말할수업다 十八銀行의 朝鮮內 九個所支店中 龍山、新龍山、羅州를 除한 이면 當行의 支店이 잇슴으로 別로 支店新設의 必要가업다 또 前記의 三個所에 支店을 新設할 與否는 決定치안

新興貿易品活況
琺瑯鐵器、電球、陶磁器、其他等
低勞銀의强味發揮

中小工場의 海外進出에 依하야 朝鮮內의 低勞銀의 强味를 如實히 살니는 新興貿易品을 擴張生産식히고잇는바 十年度에서 斷然 新地步를 보인것은

琺瑯鐵器=前年 僅僅 三十八萬圓의 輸出을 보이든것이 今年에는 工場續出로부터 輸出額은 九十四萬三千八百圓에 達하야 重要貿易品이 되엿다

電球=十年 三月 처음으로 工場進出을 보것이 十年度의 實績은 七十八萬五圓을 보여 躍進을 보이고잇다

로ー프=蘇聯에의 輸出을占하고잇는데 이 金額은 五千九萬八千圓을 보이고잇다

陶磁器이것도 東歐方面에도 進出을 試하야 前年에 比하야 四割增의 六十四萬六千圓으로되엿다

其他雜品 硝子、硬等모다 躍進을 보이고잇서 低勞銀의 强味는 本年以降更히 發揮될것으로 期待된다

農林局內에 二課增設
課長人選注目

農林局에서는 明年度 新規事業으로 米穀統制及 農村振興의 二大事業이잇다 前者에도 懸案의 米穀課의 新設을 볼것이고 또 一方 農村振興은 本格化에 伴하야 農村振興課設置가 實現되여 課制의 大改正과 이의 課長人選問題가 생긴다 爲先 米穀課의 設置에는 初代課長으로 現山澤農産課長의 就任은 不動할것으로 이 米穀關係를 除한 農産課가 問題이며 現陣容에서 米를 除한것으로서는 課로서 存續하야 性質上으로하면 農政課中의 蠶業, 畜産은 包攝할必要가 잇다 이課長에는 技術出身課長이 豫想되며 衆人關係에서 石塚氏는 實現難이고 山本務己氏의 起用이 豫想된다 一方農村振興課는 반다시 農林局에는 碓井土政, 景山農政課長이 有力하다 어떠튼지 議會가 無難通過되면 農林局에는 大局인우에 또 二課의新設이 잇슬것이고 이에伴하는 陣容刷新도잇서서 벌서부터 人選問題가 注目된다。

鰯油脂統制 微溫的改訂?
入札範圍擴張程度

鰯油脂統制의 協定은 來三月末으로서 期限이滿了됨으로 新協定의 改訂을 行하기로 되엇는데 昨年末關係五道의 水産業者를招致하야 總督府는 非公式懇談을 하얏고 更히 十日頃부터 水産關係者를 京城水産會館에 招致하야 正式으로 協議키로 되엇는데 協定改訂의 主眼인것은

一、油及粕의 買受會社의變更
一、協定期限의 改訂
一、入札方法의改訂

等인바 水産業者로서는 昭和六年에 鰯油脂統制가 開始되엿슬 當時 損失을 犧牲하고 引受한 三菱商事(粕) 合同油脂(油)에 對하야 情誼關係가잇서 새로이 引受會社가 介入에對하야 反對的意向을 表明하는者도 잇는모양이나 다만三菱及 合同油脂가 이것을 獨占함에는 北朝鮮에새로이 勃興한 油脂工業會社等에 對한 複雜한 關係가잇서서 結局入札指名者의 範圍를 擴大하는 微溫的改訂에 止하리라고 보고잇는모양이다 그리고 協定期間은 五個年은 너무長期間에 그期間을 三個年으로 短縮하자는意見이 非常히 有力하야 以上과如히 改訂은 結局 一部技葉末節的改訂에止하고 大體協定의大綱은 現狀維持의 結論을 得케되리라는 觀測이잇다한다

現銀引渡斷行
時期尙早로意見一致

【東京電話電通】中國當局의 銀引渡要求를 行한데 對하야 本側六銀行에서도 이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七日午後六時부터 丸之內銀行集會所에서 上海에支店을 가진六銀行 即正金、臺銀、三井、三菱、住友、朝銀의各代表者가 會合하야 協議를行한 結果 新幣制施行後에도 中國의財政經濟는 依然히 不安定의 域을 버서나지못하고 또 米國의 銀政策의 動向도 아직不透明한 現狀에 잇서서는 中國의 幣制改革의 成否는 오히려 今後의 推移를 注視치 안흐면 아니될것임으로 現狀을 維持할만 갓지못하다는데 一致되엇다 在中外國銀行에 條件附現銀引渡를 要求에 應하야 現銀引渡를 斷行할과 如何를 不拘코 時期尙早이다 따라서 諾否回答과 如한것도 現地各銀行의 支店에 一任하야 意見이 一致되어 正金銀行으로부터 同行上海支店에 이뜻을 通告하엿다

米財界의反動可慮

米國의農事調停法判決은 新春重大材料로서 日本서도 자못注目되던바 六日 大審院은 違憲이라고判決하얏다。八日入電에依하면 米棉一圓四十二錢暴落이엇스나 이번判決은 루즈벨트政策에 致命的打擊인 同時에 新政策의 全的破壞를 意味하는것으로서 現政府의 積極政策을 妨害하며 背後에 在하는政治的 微妙한 關係를 想見할때 好轉을 傳하든米國景氣의 持續性에 疑問이생기고 米國財界의 反動이 念慮되어 新春부터 不勢인 株界로서는 새로운 雷壓이 하나 더생긴셈이다

東新龜裂?

反彈之勢이것을보면 下餘地가 乏한듯도하지만 整理未了인東新等人氣株는 再開된議會의 情勢와 解散說이잇는 議會政局情勢가 混沌할뿐아니라 米國의農事調停法違憲判決로 米國財界反動念慮가잇는等으로보아 비록 財界實質로 餘地가 업다할지라도 目前買込될것으로 보이는 疑이만엇다。

東新은 前場에서 高價에서 完全히十圓替下되바 三十日間百七十圓臺 保合에서 그대로 上伸하얏드면 强한 市勢라겟지만 十圓替를 가지以上 大勢에 龜裂이 생긴것이라고 볼수도잇서 較派의 積極的活動도잇슬것가튼 情勢이라고 한다。

新春의新高價
騰勢의第一步

新甫三月限이 發會한後 依然保合勢로終始하다가 그러나 大勢는 高騰味를潛在하야 當局先限은 昨年中의 最高價인 三十一圓七十四錢의 同十月에 示하고 當地는 昨年中의 最高價인 二十九圓八十錢을 距하기 二十三丁의 不及으로 新春의新高價를示하야 騰勢의第一步를 進하엿다 此勢는 마치 一陽門을 열은이 昨年中의高價를 容易히上超하지못하고 幾分縮縮하는觀이잇스나 그러나最高公定米價三十三圓二十錢을 目標로하여본다면 아직도 昂騰할 餘地가 相當히 남어잇다 即最高公定三十三圓二十錢은 茨城縣二等米를 標準한것으로 堂島의 標準米인 攝津三等米에 比하야 五十錢 格下의 셈임으로 堂島市勢로는 三十三圓七十錢에 該當하게된다 그런故換算으로보아서는 압흐로 二百丁의 騰勢餘地가 잇슨즉 本年의大勢는 境遇에依하야 限地三十四圓의 市勢는 無難하다

政府方針一考
賣上은不得已

政府의 古米拂下에 代한 百七十萬石買上은 旣히 七十二萬石을買上하엿음으로 남어지九十餘萬石도 早晩間買上할것으로보지안흘수 업다왜그러냐하면 政府가將來高米價를 抑壓하려면 拂下할 살을 整備하지 안으면 아니될것이다이러한點으로보아서 農家는 今後買上이반드시 實現될것을豫期하고 絕對賣惜方針을樹立하는 光景이며 딸아서 米價는떠러지려야 떠러질機會를 엇지못하는 모양이오 또는 旣히 發表된朝鮮米買上은 本月中에 實施하기로되엿슨즉 此亦度外視하지 못할問題이다 이와가티 朝鮮米와 日本內地米의 買上을 압헤걸처두고 農安心을 할수가업스며또는 本月中에發表될米實收高는萬人이모다 減收될것으로 此等의强材를推測하는 今日임으로 賣方은 圈出하는外에는 更히低落할條地가업슨즉 押目買의 持久戰을 하기만不如할것갓다 果如何?

新春在米增加

【仁川】本月四日現在仁川在庫米는前週에比하야 合格品은 二七五五七叺의 增加를示하엿는데在品을類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 一七九、五三〇叺 (民)二四一、五〇五叺五斗入一〇、一七三叺 ▲白米五三二叺 ▲正租叺入八六、九三三叺(民)

經濟界消息

○海東銀行總會=二十五日 午後一時부터 定期總會를열고 當期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年四分配當)을附議할터이라고

奉天取引所 十五日解散式

【奉天電話商通】一月十五日午後一時부터 奉天取引所市場에서奉取、奉取信及奉取引人組合 三者合同의 解散式을 行하리라고

商況【八日】

株式 揉合裡에 軟弱

前場不變 今前場은 雙方에 氣迷가 深甚하야 消極的傍觀으로 閑散細刻不變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百六十五圓二十錢、大新二十錢低인 九十四圓九十錢、日産三十錢低인 九十四圓八十錢、鐘新不變인 百四十八圓五十錢、朝新三十圓八十錢이 各大引되고 日産新二十二圓丁

後場軟調 後場은 東新百六十五圓二十錢、日産七十四圓七十錢、鐘新百四十八圓丁、朝新 三十圓八十錢에 依然保合寄後 軟調程大引

惡性肺患市勢? 賣込繼續形勢

一氣로 崩落되지안코 底堅한듯 하지만 舊觀拂込을떠돌고 實質以上으로 買煽한朝新等 整理로 持續株는 採算關係 材料로 賣込될形勢로보이며 日鐘、日産、日魯等優良株가 値晷下하고 도리어

甲五分利 一〇五·五〇

期米 難伸難押 保合

前場保合 昨後場阪地 三十一圓六十八錢止와、共히二十九圓五十一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六十六錢인 二丁反落을機하고 二十九圓五十一錢인 昨止同樣으로 場은始한後 限地七十錢의 六番同價와 七十一錢의 三番同價인 保合裡에止場하엿는데 三節五十三錢으로 四十八錢까지 小弛하엿다가 五十錢에 止場하엿다

後場同調 後場은 二十九圓五十錢에 五丁高로 始場後二節五十一錢에 更弛 三節買賣不成으로 五十錢과 五十一錢間細刻이다가 五十一錢에 止場하다

實物株前場取引

◇日立製作所 [illegible] ◇三菱商工業 [illegible] ◇大阪商船 [illegible] ◇日本郵船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片倉製絲 [illegible] ◇鬼怒川水電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取引高 一六〇〇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金融前途의緩漫豫想으로 買人氣旺盛하야五分利는一齊히 十五錢高이요 米貨는 白熱的買人氣로 六分半二圓四十錢、五分半二圓四十五錢高로暴騰되어 新高價를 現出하얏다

市場六感

株 前場은保合 後場前半은떠러지고 引際反彈인 場勢이二三日繼續▲反彈되니가 底强하게도보이고 下餘地가 업는것가티도 보이며 反落一巡으로 보이기도하지만 ▲無理히버티는것이라면 惡性의肺患的氣勢라고도볼수잇는것 ▲二田原取引店 吾藤新支配人도『엇재漸漸不勢인품이 와루루運어지기쉬울라』고 弱氣主張▲不勢、揉合、保合이 三月까지 繼續된다면 地場의疲弊가 甚할것을 벌서부터 걱정하는사람이잇다 新春에新機가지안은 生氣업는 소리이지만……▲米國聯邦大審院은 農事調停法을 憲法違反이라고判決 金約款判決以上으로大衝動 이로서 루大統領新政策의거의全部가 告終 好轉되면 米國財界의 反動이可慮 ▲어재자미업는소리만 들닌다 市勢의 前途도 무시무시

米 今年은丙子年! 丙子年이란말만들어도 凶作을聯想하게되다 그럼으로 今年도凶作이아닐가한 悲觀說이 不無하다▲그러고 겨울에 降雪이적으면 그翌年에降雨가 적다는 傳說이 업지아니하며 又는十二月의天候와 翌年六月의天候가 同一하다는說도不無▲此가 어떠한 原理的이라하면 今年 겨울에 降雪이적엇고 또十二月의 天候가 旱魃이엇스니 明年五六月의 旱魃가 업지안을것을豫期▲이와가티 新春부터 가지强氣說이多하며 딸아서市勢는 昨年度天井附近에서彷徨▲農家는 依然政府의買上을期待하고 實情不急하며 政府는 前途高米價를 防止하는關係上 買上을繼續하지 안을수업는 立場에잇슨즉 結局市勢는低落할機會를 엇지못할모양▲日本內地米의 買上할것도九十餘萬石이나 남아잇고本月中에 實施하기로 旣히發表한朝鮮米買上도잇슨즉 又一段高價를 示現하고야 말이라고市中商談이區區

各地正米

京城保合 淸算不透明과 賣行不振으로 氣勢不揚하야 市況이極히閑散한 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七圓三十五錢 一等白米三十一圓丁

仁川不變 舊正을압두고 産地信外强한 市況이不振하나마 市況下落의 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三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釜山小弛 期米의 保合으로 賣方非常히 警戒되고 此間必需口가 準備하야 三千九百餘叺의 取引이 成立되어 小弛인 仁三等二十八圓九十錢四等二十八圓六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十錢

大邱同調 産地賣價에는 依然不合理한狀態로 新規買付가 極히 消極的이오 市況은閑散裡에 保合인 仁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一息 鶴岡 定期의新値으로産地에比하야 懷이警戒的이오 市況은閑散裡에 保合인 仁三等二十九圓丁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四圓丁

木浦釘付 期米의保合으로 人氣不冴이오 狀態에推移되어 市場은活氣가乏하고 仁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 田中貞 中谷乘換
▲買方=地場小口側 同米自己乘換

期米(八日) ◆朝取期米 / ◆大阪定期 / ◆大阪正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新鮮內各地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株式(八日) ◆朝取短期 / ◆鐘定代引日步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東京短期 / ◆東京長期 / ◆東京現株 /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金融(八日) ◆海外經濟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金買入價 / ◆外國爲替

[illegible]

穀物(八日) ◆京城正米 / ◆仁川正米大豆 / ◆京城雜穀 / ◆各地正租市勢 / ◆日本正米

[illegible]

商品(八日) ◆京城綿糸布市勢 / ◆京城綿布 / ◆日本麥粉市勢 / ◆鹽油沖價 / ◆大連特産市勢 / ◆滿洲商況 / ◆鰯搾粕沖價 / ◆大阪綿花 / ◆大阪砂糖 / ◆橫濱生糸 / ◆各地人絹 / ◆大阪棉花 / ◆紐育 / ◆시카고期麥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門商店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金銀寶石貴金屬買入 代金引換 地方注文送料先金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